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51 1982년 2월18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February 1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캐나다와 미국, 무엇에 대립?

「불편한 관계」 돌입

에너지, 어로, 방송문제등 맞서

세계에서 가장 긴 5천마일의 국경을 접했으나 무장군인의 국경초소가 없는 곳, 캐나다와 미국은 양국 관리들의 부인에도 불구, 점차 「불편한 관계」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불화는 80년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트루도가 캐나다 수상에 재선출되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인플레 억제목적등을 가지고 시작한 미국의 「레이거 노믹스」 (레이건 대통령이 시작한 현 미국의 경제정책)은 트루도가 시작한 석유산업 캐나다화 조처인 「국가 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rogram)」과 팽팽히 맞섰다.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상징한 표현·국기 두개는 합쳐졌으나 이미 금은 가고 있다.

양국의 불협화음은 주로 무역정책에서 비롯되지만 두 나라의 경제정책, 외교, 국민복지정책, 에너지, 환경오염에 관한 이견에서도 연유된다.

오타와는 캐나다가 미국의 경제정책 범주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캐나다의 경제정책가들은 알버타주의 석유등 에너지자원은 캐나다가 미국에 대항하는 가장 큰 무기라고 본다.

미국과 캐나다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양국교역에 면세정책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후 양국은 서로 수입세를 부과 하면서 자국무역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양국관계는 그후 기복이 심했다. 70년대초 닉슨대통령은 실수로 "일본은 미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캐나다를 경시, 트루도 정부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다. 닉슨과 트루도는 서로 싫어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중요교역국이다.

포드나 카터 대통령시절 양국관계는 개선됐다.

트루도와 죠·클락 보수당수(잠시 수상노릇)는 카터와 특히 친분을 가졌다.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이 점령당했을 당시 6명의 미외교관을 몰래 빼돌린 캐나다대사관의 공로는 양국친선 무드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우익노선으로 선회했으나 캐나다는 바로 이때 점점 좌파노선 경제로 옮겨여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됐다.

양국간 쟁점으로는 에너지나 무역문제뿐아니라, 동해안 어업문제, 연료공해문제, 외국인 투자보호법등이 있다. 문제점을 요약, 캐나다와 미국의 견해를 비교해 본다.

문제점	미국입장	캐나다입장
캐나다의 「국가에너지정책」 80년10월 채택된 1년후 수정된 캐나다 국가에너지개발계획(NEP), 1990년까지 캐나다 석유산업의 50%를 캐네디안이 소유케 하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캐나다석유업자에게만 특혜를 준다.	국제협약을 무시한 차별정책이다. 미국은 캐나다인이 소유한 석유회사에게주는 캐나다정부의 석유탐사보조금과 캐나다 제품구매원칙철폐를 요구했다.	당연한 국가이익 추구이며 최소한도의 에너지산업 캐네디안 소유원칙을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국제협약에 하등 어긋나지않는다.
동해안 어로수역협정 오랜 협상끝에 양국은 78년4월 어로수역과 어획고배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나 레이건 대통령은 상원상정을 보류했다. 동해안 조지스·뱅크및「메인」만(걸프·오브·메인)의 경계문제는 국제재판소에 계소돼 있다. 어획고 배분문제도 미해결 상태.	미국정부는 이 조약이상원을 통과하지 못할것으로 판단, 어획량등에관해 새협상을 원한다.	내각이 승인한 이 조약을 원안대로 미국측이 비준하기를 원한다. 재협상 의사가 없다.
국경간 전파문제 76년 이후 캐나다는 캐나다광고주들이 광고비를회사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자국내 방송 TV회사에 실린 광고에 한한다고 제한했다. 이때문에 양국 접 경지역의 미국측 방송TV회사들의 광고수입이 크게 줄었다.	캐나다측 조처는 불평등하다. 카터및 레이건대통령은 캐나다 방송회사에 대해서 보복적 입법을 원했으나 의회가 불응.	캐나다 방송TV회사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
캐나다·미국을 연결하는 석유파이프라인 양국은 알라스카 개스 수송파이프를 공동으로 가설한다고 77년 합의했다. 7,700㎞에 달하는 이 파이프는 알라스카의 천연개스를 미국본토까지 보내기 위한 것이나 미국은 미국측 공사 배당량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민간자금으로 파이프공사를 끝내기를 원한다. 의회는 공사자금 특별융자법을 제정했으나 아직 공사에는 진척이 없다.	캐나다측 담당구역인 남부지역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공약을이행, 속히 공사를 진행하라.
미국상품 우선구매원칙 경기침체 때문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미국상품구매 우선원칙(바이·어메리칸)을 적용했다. 이에관한 새 연방법이 하원에 상정됐다.	미국정부는 주 내의 산업을 적극 보호하려는 주정부와 대립하기를 꺼린다. 정부는 미국산업 보호정책대신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자제를 원한다.	국제적으로 불때 차별적 불법적이다. 레이건 정부는 이같은 차별정책에 관한법이 연방및 주의회에서 제정되지 못하도록 노력하라.
캐나다 외국인투자보호법 캐나다는 74년 외국인투자심사법을 제정, 투자 심사기관이 외국인의 캐나다내 투자(간접투자 포함)를 검토, 허가해 준다.	국제관세협정(GATT)의 위반이며 미국이익에 대한 차별정책의 본보기. 투자심사기구의 해체를 원한 미국은 이 문제를 제네바 국제관세 기구에 제기했다.	외국인들의 합법적 투자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다만 투자가 캐나다에 이득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법상 합법적이며 캐나다 경제를위해 필요하다.
산성비 공해문제 석탄을 연료로 한 화력발전소같은 미국측 공장 에서 나오는 아황산개스는 소위 산성 비(에싯·레인)가 되어 온타리오및 퀘벡주에 떨어진다. 이 때문에 호수의 생물이 자꾸 죽고 있다.	캐나다의 산성 비는 미국이 주요 원인이 아니다. 산업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문제는 경비상 어려운 상태. 미국은 석탄에 의한화력발전을 오히려 장려한다.	대부분의 산성비는 미국산업 때문에 생긴다. 캐나다의 자연과 관광산업을 보호키 위한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다.

일본차 판매 감소 전반적 부진영향

캐나다내의 일본 승용차 판매고는 1월중 다소 하락, 일본과의 수출제한협정이 완결된 후 수개월만에 처음 감소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북미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동차회사들의 판매고가 크게 부진하여 일본은 오히려전보다 더 많은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1월중 일본의 혼다, 토요타, 닛산, 마쯔다, 수바루, 미쯔비시 자동차회사는 총 10,952대를 캐나다 시장에 팔았다. 이것은 작년 같은달보다 5%낮은 판매율이지만 신형차 판매의 29%를 차지했다.

자동차산업 통계에 따르면, 유럽, 영국, 러시아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자동차의 1월중 판매는 작년보다 15% 떨어진 1만3천442대였으나 33%의 캐나다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한편 침체된 경제, 고이자율과 소비자들의 자동차 가격하락 예상, 혹은 상환프로그램등으로 북미산 자동차의 1월중 판매율은 작년보다 45%나 하락, 50년대말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련차 「라다」는 다른차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1월중 라다의 판매량은 772대로 독일산 폭스바겐의 718대를 앞질렀다. 폭스바겐 판매고는 작년보다 무려 47%나 떨어졌다.

일본은 작년6월 캐나다와 81년4월부터 82년3월까지 174,213대로 일본산 승용차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협정을 맺은바 있다.

"바다의 힘은 못이겨"

시추장 사고 측근들 비통에잠겨

(세인트존스－뉴 펀드랜드)"화가났냐구? 화 갔고 돼나 하나님도 놀라서 펄쩍 뛸일이지!"

84명의「오션레인저」호희생자 유가족 메리·톰슨씨가 내뱉는 말이다.

15일 오일탐사장 오션레인저호가 침몰, 84명의 인명을 앗은 사건은 뉴펀드랜드수도 세인트·존스를비통에 빠지게 했다. 84명중 53명이 뉴펀드랜드 주민이고 그중 31명이 세인트·존스 출신이다.

메리·톰슨씨는 16만명의 세인트·존스주민 전체가바다를 생계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아니지만"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어떤지를모른채 200마일밖 해상으로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원 칼·키핑은 다르게 말한다. "죽은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바다와 싸울수는 없다. 사람들은오션레인저가 침몰될수가 있을까고 의아해 하나 이세상 아무것도 바다를 이길수 있는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무도 왜 이 거대한 석유탐사장이 가라앉았는 지 모른다. 사고4일전 탐사장으로 돌아가야 했던 카바나씨는"왠지 그곳으로 가기싫어 휴가를 연장했다. 동료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그들은 아마 잠자리에서 옷도 제대로 못입은채 빠졌을 것이다"고 회상했다.

84명중 구명정에 의지한 채 죽은 한명의 시체만 건졌을뿐 83명은 시체조차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가장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은 1970년7월 토론토에서 DC－8항공기가 공항이륙직후 엔진파열로 추락, 109명이 떼죽음을한 사건이다.

◇바닷속에 갈아앉은 세계 최대 시추장 오션 레인저.

쏘련어선도 침몰

33명실종 5명구출

(할리팩스)84명의 인명을 앗아간 석유탐사장 「오션레인저호」사고지점과 가까운 해상에서 또 사고가 일어나 3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소련어선 메카닉타라소브호는 16일 계속되는 강풍과 파도로 선원 83명중 5명만이 구출되고 33명이 실종됐다.

사고직후 각국선박 들이 구조작업을 시도하려했으나 메카닉호는 이를 거절, 동료어선「이반도비스키」호가 올때까지 구조가 지연돼 겨우 5명의 인명만구출되고 21개의 시신만 건져냈다.

이태리와 항공협정 32개국으로 늘어

(서울 17일＝연합) 한국은 올해에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리비아및 인도네시아와 항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과의 항공수교국은 32개국으로 늘어났다.

교통부는 1990년까지 아르헨티나와 가봉등 13개국과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오.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 찬 영
변 호 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SEOUL '88

올림픽후원회 발기총회 취지문

1981년 9월30일 I. O. C. 총회에서 결정된 1988년 하계 올림픽 서울개최는 분단국이며, 개발도상국가인 우리모국 대한민국에 올림픽정신을 재 현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민족의 저력을전세계에 과시하고 민족웅비에 결정적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스포츠 제전이 아닐수 없다. 88년 올림픽의 서울유치는 인종, 국가, 종교, 정치를 초월한 전세계의 단결과 친선을 통해 인류공동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올림픽정신의 부활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국제적 지위를 반석위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것이다. 즉, 올림픽 유치는 발전하는 국력의 상징이며, 세계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차부를 북돋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민족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쾌거인 것이다. 올림픽유치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가져와 평화성취의 기운을 일으키고, 동구공산권및 비 동맹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모국은 선진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소식은 국내외의 우리동포에게 가슴 뿌듯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를 가져다 주었으며 세계로부터 우리의 국제적인지위와 국력을 인정 받았다는 기쁨과 함께 카나다에 살고있는 우리 4만여교민사회에도 벅찬 감격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1988년도 동계 올림픽이 카나다의 칼가리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어 한국과 카나다 양국간의 거리감을 더욱 좁혀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교민도 한·카 양국관계 심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바로 우리 모국 대한민국이 국력신장과 발전의 계기가 되며 우리 모국의 발전은 카나다 교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재 카나다 4만여 교민을 대표하여 우리는 모국에서 개최되는 88년 올림픽개최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재 카나다 교민의 성원을 조직화 하기 위하여 가칭(재 카나다 교민 모국 올림픽 후원회)를 발기코자 하오니 뜻있는 많은 교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1982년 2월25일(목) 하오7시 장소 : 한 인 회 관

발기준비위원 : 황대연 장순채 이병권 이창복 조영호 박인순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불황의 시대 교회만 번창
강남구, 277명당 한개꼴

(서울 17일=연합) 세계에 제일 처음 교회를 설립시킨 성 베드로(St. Peter)가 현재의 서울 강남지역을 돌아 보면 감회가 클 듯.

인구 555,000명, 87.9평방킬로미터의 강남구에 이미 설립된 교회수만도 200여개로 인구 277명당 교회 한개꼴이고 그밖에 이전을 계획하는 교회까지 합치면 이 지역의 교회밀집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영락교회, 충현교회등큰 교회들까지 새 교회건물을 이곳으로 옮기는 이유는땅이 넓고 건축허가를 얻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지만, 서울시 전체로 보아도 최근 수년간 교회수가 눈에 띄게 늘고 규모도 엄청나게 커져 한국사회의 특수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구에서는 웬만한 큰 건물은 다 교회이며 아파트 동마다 2~3개씩의 교회를 갖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으로 옮기려는 충현교회는 건축비만 백억원(미화 1,418만불)의 5층 건물로 지하주차장과, 5개국어로 동시 통역되는 시청각시설까지 갖출 예정이며, 4만5천명의 교인을 가진 영락교회도 6천61평방미터의 대지를 이미 구입해 놓았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건축비를 평균 10억원으로 잡고, 있어 불황의 시대에서 가장 번창하는 것은 교회인것같다.

〈봄바람〉제2호 선련사 발간

한국불교회 선련사가 발행하는 격월지〈봄바람〉(Spring Wind Newsletter of the Zen Lotus Society) 제2호가 나왔다.

영어로 발간되는 이책은 불교설법과 행사안내가 수록돼 있으며 주로 비영리자선단체인 선련사의 수도승및 불교교인들을 위해무료로 배부된다. 전화 533-6911로 연락하면 된다.

징병연령 19세로 낮춰
국졸자도 입대 가능

(서울 15일=연합) 한국정부는 국졸학력을 가진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지원병제도를 모색중이다. 지금까지는 국졸자는 군입대가 불가능했다.

이같은 지원병제도는 고교졸업자로서 아직 징병연령인 19세에 못미친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모병관리소 소식통은 지난 주말 새 제도는 국회에서 법적절차를 거친 후 금년 4월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징병제도 아래서는 저학력자는 신체 결함자와 함께 부적격 요소로 간주된다.

군입대연령에 도달한 젊은이들의 수가 매년 징병쿼타를 훨씬 상회하자, 국졸출신자들은 군에 입대할 기회가 없었다.

그들은 단기복무의 방위로 되거나 보충역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소식통에 의하면 이들중 상당수는 3년연한의 정규군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

징병연령 미만의 많은고교졸업자들도 의무인 군복무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마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징병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춰, 고교졸업자들이 졸업후 바로 입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젊은이들은이 보다 낮은 나이에 고교를 졸업하고 있다.

현재 고교졸업자는 지원제아래서만 하사관이나 기술하사관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은 일반복무 연한인 3년보다 오래 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저축금리 세일
한인신용조합, $200만 돌파기념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은 1월말 현재 예금액 210만달러를 돌파, 그 기념으로 앞으로 1개월간 정기예금의 금리를 현행 13.75%에서 14.5%로 인상, 봉사키로 했다. 이는 금리특별세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퍼센테이지는 현행 시중은행의 $5천 미만 예금에 12.5%, $5천 이상 예금에 주는 13.5%보다 1~2% 더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한편 대부금리도 일반은행보다 싼 금리로 봉사하고 있다.

저축이나 대부에 있어 은행보다 조합원에 유리하게 봉사하고 있는 신용조합은 641A Bloor St. W.로 확장이전한 후 직원 늘고 업무량도 부쩍 늘고 있다.

주간女性

교민동정

◆이영화(전 한인회 사무장)작년2월부터 10월 까지 한국 중앙대, 한양대, 고대에서 시사영어, 영작, 영소설등을 강의하다가 최근토론토로 돌아왔다. 토론토대학교에서 영문학을 다시수업중인 이씨는 시간을 쪼개 유료통역및 번역업무를 보고있다. 전화는 281-1677.

걸작만화

『필스트럼양, 당신에게 혈압재는 법을 가르쳐준자가 누구요?』

"Who taught you how to take blood pressure, Miss Wilstrum?"

천주교신용조합 정기총회
5년간 예금8배 $142만

토론토한인천주교회신용조합(조합장 김흥량)는 지난 14일 세인폴성당에서8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경과및 현황보고, 결산서 통과, 공로자 표창, 일부 임원개선을 실시했다.

김흥량 조합장겸 이사장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는 김용대 여신위원장의 여신상황 보고, 정만봉 감사위원장의 감사보고에 이어퇴임하는 김용대씨와 장연타 감사 후임으로 여신위원에 송창섭씨, 감사에 최남권씨, 이사를 2명 증원하여박송국·이종현씨를 거수가결로 선출했다.

한편 76년 조합 창설이래 공이 많은 김용대, 유좌석 양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현재 이 신용조합은 제1단계 활동으로 ①저금및 인출, ②소액 5천달러의무담보 신용대출, ③적금 실시, ④자동차 구입대부의 4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조합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연도별 예금·대부실적은 예금총액이 첫해 76년의 $19만에서 5년후인 81년은 약 8배인 $142만4천여로 늘었으며, 대출 총액도 77년 $9만1천에서 81년은 $85만8천여로 9배이상이 됐다.

77년 회원수 189명이 현재는 664명으로 불었다. (별지 도표 참조)

◇조합 임원

●이사진 : 김흥량(조합장겸 이사장)·김지일(부조합장)·김진기·신경용·한병원·박송국·이종현

●여신위원 : 허대통·김상린·송창섭

●감사 : 정만봉(상임감사겸 위원장)·한용식·최남권

●재무 : 이예자

◇예금및 대부실적

연월일	예금총액	회원수	대출총액	대출건수
1976, 12, 31	19,123.23			
1977, 12, 31	139,519.89	189	91,137.09	46
1978, 12, 31	271,101.14	322	174,137.09	83
1979, 12, 31	396,779.81	352	262,974.95	135
1980, 12, 31	811,035.46	565	583,995.64	175
1981, 12, 31	424,521.64	664	858,532.74	253

캐나다「그림市場」누비며….
피와 땀의 외골수 10년
노점에서 시작 캐나다전역으로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초창기에 밴쿠버에서 10여년간 외골수로 한 우물을 파서 캐나다시장에 한국그림을 상륙시키고 한국에『캐나다 그림』이라는 새로운 술어를 낳게한 장본인, 이제는 어엿한 캐나다굴지의「아트 딜러」(Art Dealer)가 되어 캐나다그림시장을 누비는 의지의 교포실업인이 있다.

신원용(44)씨. 신씨는 1968년 8월에 조그만 가방하나를 들고 무작정 태평양을 건넜다.

그당시 밴쿠버 지역에는 유학생, 의사등 한인이라곤 50여세대가 살고 있을 뿐이었다.

공구도매상의 경리사원으로 첫 취직은 되었으나 발전할 한계점을 미리 예견한 신씨는 야간 근무부서인 창고 관리직으로 바꾸어 낮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샘플을 차에 싣고 백화점이나 소매상을 찾아다녔다.

소량은 신씨를 통해 주문하였으나 대량주문인 경우 직접 한국 생산업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오파상의 꿈도 깨졌다.

「내가 직접 들여와서 내가 소매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신씨는 한국에서 적당한 품목을 찾던 중 그림을 소량 들여왔다.

한국산 대일본과 미국수출용 그림과 홍콩, 필리핀, 대만과 태국등지에서도 그림을 소량 주문, 소매상을 찾아다녔다.

버나비 IGA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트레일러 주위에 그림을 진열고 판매하는 한 영세업자가 외상 그림값을 갚지 못하자 신씨가 이를 인수하여 판매원을 두고직접 시판을 시작하였다.

판매원이 갑자기 그만두자 신씨는 회사를 사직, 트레일러 노점가게를 직영코자 나섰다.

이날부터 신씨는 고객을 상대로 캐나다인들의 그림에 대한 취향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림에 대한 구도, 색감, 싸이즈등이 동양인은 물론 미국인과도 달라 인종적인 배경, 거주지역, 연령층등 다양한 복합요소가 개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신씨는 천편일률적인 나열식 그림 판매 방식에서 이들의 취향에 맞추는 판매방식을 택하게 되자 그림은 불티가 나게 팔렸다.

밴쿠버 신원용씨… 굴지의「아트딜러」군림

◇조그만 가방하나를 들고 태평양을 건너온 신원용씨가 숱한 시련을 딛고 이제는 캐나다「그림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한국그림 불티나게 팔려

파킹장 노점을 시작한지 6개월만에 1천5백 스케어 피트의 정식가게를 열었다.

그동안 캐나다시장 분석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갖고 한국에 나가 화실을 찾아다니며「캐나다인을 위한 그림」을 주문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다」「판매성이 없다.」고 아무도 신씨의 주문을 받아 주지 않았다.

「좋다. 그러면 내가 화실을 열어 캐나다 수출용그림을 제작하여 내가 팔자」신씨는 서울에 화실을 열었다.

『한국의 사과그림은 한국사과지 캐나다사과는 아닙니다. 내 서울의 화실에서는 캐나다 사과를 그릴 수 있지요』사업비밀을 신씨는 조금 비친다.

이때부터 한국 에서는「캐나다그림」이란 새 술어가 나오고 한국 그림이 캐나다에 상륙케 되었다.

캐나다의 그림 수입자를 서울의 화실에 초청, 상담을 벌렸다. 또한 이들이독점하던 캐나다 그림시장을 잠식하게 되었고, 기존 도매업자들이 동요하게 되었다.

1974년 여름 어느 토요일밤 11시30분경 경찰의긴급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가게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캐나다 이민 6년동안 온 정력을 쏟았던「피와 땀」이 순식간에 허사가 된 것이다. 남은 것이라고는 은행빛 뿐이었다.

신용을 담보로 거래처에서 돌려준 그림을 갖고 1주일후 다시 불탄 가게앞 마당에서 노점을 벌였다.

서울의 화실에서 급송된 그림이 도착하자 신씨는힛트·앤드·런 작전을 세우고 5명의 판매원들에게 벤트럭을 주어 B.C.주 전체를 누비게 하고 서리지역과 밴쿠버 다운타운에 그림가게를 열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참석, 한국산「캐나다 그림」을 소개하고, 캐나다 전국을 연결하는 도매 넷트 웍을 구축하였다.

신씨는 밴쿠버가게를 수입업자를 위한 쇼룸으로 제공하면서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전환하였다.

서울의 화실에서 수입하는 업자들의 모든 크레임을 밴쿠버에서 개런티하는 전법을 써서 한국그림의본격적인 판매에 착수하는것이다.

수시로 변하는 캐나다그림시장의 정보분석과 새로운 취향의 창조, 이를 토대로 한 신속한 제작방향 결정등「생산-수출-수입-도매-소매」의 일관된 운영방법으로 동양인이 침범하기 어려운 캐나다 그림시장에서 튼튼한 기반을굳히게 된것이다.

캐나다의 서부에서 동부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갤러리에 신씨가 공급한그림이 걸려져 있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신씨의 사업적인 저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밴쿠버 상공회의소 회장직도 맡고 있는 신원용씨는「장사하다 보니 결혼도 늦어 아직 큰 아이가 학교도 못들어갔다」고.

(밴쿠버 유영호 기자)

작년5월에 $1,000,000을 돌파한

한인신용조합은 지난1월 **$2,100,000을**

달성 하였읍니다.

교민여러분께서 키워주신 덕분으로 명심하고 보은의 뜻에서 금후 한달동안 정기예금에 대한 금리를

14.50% 로 봉사 하겠읍니다.

(현행 13.75%)

일반은행은 $5,000미만은 12.5%

$5,000이상은 13.5% 입니다.

대부금리는 일반은행보다 싼금리로 봉사하고 있읍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982년 2월 18일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이사장 한 상 훈

— 법과 보험이 보장하는 —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 M6G 1L1 TEL : 533-9387, 9388

아시아 민속촌 건설

88년서울 올림픽 앞두고, 역사 • 전통 문화 기념물 모아

일본 • 자유중국 • 태국등 10개국 자비부담으로 참가

(서울 —연합)한국은 오는 88년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울 인근지역에 아시안 전통민속촌을 세울 계획이라고 교통부가 발표했다.

신설될 아시안 전통민속촌에는 다양한 아시아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각종 기념물들이 선보이게 된다.

청와대에서 행해진 8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윤자중교통부장관은 신설될 민속촌에는 일본·태국·자유중국·인도·필리핀등 10여개국의 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들 시설비는 참가국의 자비부담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장관은 또 올림픽개최로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 서울 근교에 이들을 수용할 민가형식의 숙박시설 1만여채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아랍원유 의존도 감소

작년 총도입량의 43.9로

사우디가 최대공급원, 하루 백만배럴

(뉴욕—、 , 미국의 아랍원유에대한 의존도가 지난해 감소되었다.

미드이스트 리포트 뉴스레터가 보도한바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월부터 9월사이에 아랍산유국들로부터 총수입원유의 43.9%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동기의 46.7%보다 2.8%가 감소한것이다.

아랍산유국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의 원유공급국으로 지난해 1월부터 8월사이에 1일 1백만배럴이상을 공급, 미국의 원유 총수입량가운데 약 18%를 차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다음으로는 나이제리아가 가장 많이 수출, 1일 65만8천배럴을 공급, 미국의 총수입량중 11.6%를 차지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7%를 공급했다.

少女 연쇄강간범 捜査, 제자리걸음

램파트경찰서가 최근 연속적으로 어린소녀들을 강간한 용의자의 체포를 위해 17일 발표한 핫라인(긴급전화 연락번호)에 약2백여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됐으나 이중 도움이 될만한 것은 없었다고 한 경찰관계자가 밝혔다.

작년 45개국서보고

(아틀란타, 조지아— 페니실린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악성임질이 미국과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표했다.

작년 1월~11월 사이에 미국내에서 보고된 악성임질은 총2천4백28건에 달했다.

페니실린에도 저항력을 보이는 악성임질은 미국에서 지난 1976년 처음 발견되었다.

전세계적으로는 적어도 45개국이 악성임질의 발생을 보고했다.

미국내에서 매년 보고되는 일반 임질케이스는 1백만케이스를 초과하고 있다. 악성임질은 현재 총임질케이스의 1%미만에 불과하지만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계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CDC당국은 악성임질이 만연되어 있는 동남아시아의 여러국가들로 부터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점차 번져 가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의사들은 악성임질을 치료하기 위해 페니실린 보다 훨씬 비싼 스펙티노마이신등에 의존하고 있다.

▲ 겨울먹이를 찾아 날아온 흰머리 독수리. 1782년 미국 국장으로 지정된 흰머리 독수리 한마리가 일리노이주 몰린근역의 미시시피강에 있는 나무가지에 앉아있다. 독수리 전문가에 의하면 1천1백여마리의 흰머리 독수리가 지난달 겨울먹이를 찾아 일리노이주로 날아왔다고.

〈매일연재 캐나다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32)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확실히 오호토의 마음은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꽉 차 있었다. 여행도중 그는 오랫동안 긴장되어있던 마음을 도저히 참을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의 태도에 격노하고 말았다.

나는 총을줄수 없으며그의 마음속에서 그런 미친 생각을 싹 지워버리지 않으면 내가 지워주겠다고얼러댔다.

그는 말없이 우리곁을 떠나서 호수가에 있는 바위위에 앉았다. 그동안 앤디와 나는 총, 손도끼, 칼, 오호토의 물건까지 모두주워 모아 우리 텐트에 있는 침랑밑에 숨겼다.

우리는 이사람이 몹시 못마땅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할지 전혀 갈피를 못잡고 있는 답답한 불확실 속에서 일부러 마지막 참을 수 없는 중압감을 더하려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은 불안한 긴장이 견딜 수 없어서 신경은 쇠약해질대로 쇠약해 졌고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정상적이 못되었다. 앤디와 나는 우리 눈앞에 죽은 시체를 보는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을 따름이 고 오호토가 죽는다고 해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기로 로 말을 주고 받았다.

무기를 감추고 난 ㄱ에 나는 오호토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이누이트말로 내가 할 수 있는한 가장 혹독하게 그를 나무랐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후 나는 내자신이 비열해지고 구역질이 나는 것을 느꼈다. 이사람에 필요한것은 우리가 줄수있는 동정과 이해심일것이라고 희미하게 깨달았다. 우리가 이 황무지에서 외로움을 느꼈는데 하물며 그자신은 우리들보다 3배쯤 더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분노를 억지로 참고 오호토에게 죽어서는 안된다고 부드러운 말로 달랬다.

그는 내말을 듣는지 마는지 전혀 반응이 없었고 나의 분노는 전보다 더크게 발작되었다. 나는 텐트로 되돌아오면서 영어로그에게 마구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앤디와 나는 이 에스키모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잠을 잤다. 나는 마음속에서 그를 생각지 않으려고 애 썼지만 잠이 오기는커녕 그를 잊을수도 없었다.

우리가 잠자리에 누운지 몇분도 채 되지않아서 두마리의 노란부리를 갖고있는 룬(되강오리 북쪽에 사는 새의 일종)이 광기어린 비명을 지르며 무거운 밤공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들은 며칠동안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살아있는 동물의 소리였다.

이들은 긴장된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주기는커녕 그들이 미친듯이 총알대는소리가 피와 살을 갖고 있는 동물이 낼 수 없는 괴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새들의 울부짖음이 시작되자 마자 오호토도 끼어들었다. 새들의 소리가 오호토의 목소리에 합창이되어 미쳐버린듯 열을 가했고 오호토는 새들의 높은 음정에 맞추어 죽음을 앞에둔 이할미우트 특유의고음과 단조로운 음성으로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소리는 한밤중까지 끝없이 계속 되었고 나는 침랑을 꽉 움켜 쥐고 있어서 내 손톱이 빳빳한 침랑 거죽에 갈라져버렸다. 드디어 피로에 못이겨 나는,무서운 악몽을 꾸며 새벽까지 잠들어 버렸다. 나는 한참동안 드러누워 하얀 서리기가 낀 모기장을 쳐다보면서 노래소리가 이미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나는 거기에 누워서 오호토가 죽어버리고 말았구나하고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워 졌다.

날이 완전히 새자 나는 오호토의 텐트로 가보았으나 그는 없었다.

나는 그를 찾지 못하게 되자 미친듯이 바위 벼랑사이에 넘어지면서 뛰었다.

마침내 불가장자리 이끼가 잔뜩난 곳에 얼굴을 파묻고 누워 있는 그를 발견했다.

한동안 나는 그의 낡고 찢어진 털가죽 파카를 건드리기를 주저하며 꼼짝안하는 그의 옆에 서있었다. 그의 주위가 좀더 밝아졌을때 자세히 내려다 보니 그의 파카가 그의 잠자는 숨결때문에 규칙적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것이 보였다.

내가 그때 느낀 안도감은 이루 형용할 길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를질렀더니 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다. 나는 담배봉지와 파이프를 꺼내서건네주었다.

그날 아침 마음을 진정한것이 아니라 자기잘못을 완전히 뉘우친 이 에스키모와 우리는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 우리는 아직도 그가 우리와 함께 살아 있다는 것이 안심도 되었거니와 너무나 즐거워서 어쩌나 수다를 떨었는지 모른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저렴한 가격、성실성의껏、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공산권 선교회 헌신예배 안내

금번 본 선교회에서는 성백회 목사님을 강사로 헌신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헌신예배를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4 : 30분에 시내 여러교회를 돌아가면서 드림)

— 아 래 —

강 사 : 성 백 회선교사(중공선교사 내정)
시 일 : 1982년 2월28일 오후4시30분
장 소 : 토론토한인장로교회당
1183 DAVENPORT RD. TOR.
535-6864.
연락처 : 423-9880
※단, 예배후 임원회와 이사회를 모이겠읍니다.
198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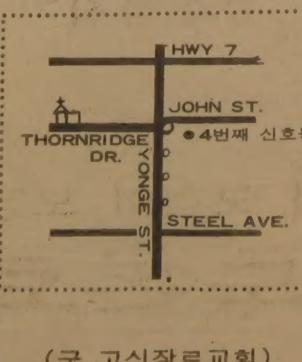
공산권 선교회 본부이사장
김 창 인 토론토지회장

안내말씀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새이름을 가지고 목사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배전의 관심과 교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새 이 름 : 시 민 교 회
목사취임식 : 1982년2월20일(土) 오후1시
취임목사 : 조 성 란 목사
교회주소 : 148 THORNRIDGE DR. THORNHILL, ONT.
교회전화 : 266-4918



시민교회 (구 고신장로교회)
THE KOREAN CIVIL PRESHYTERIAL CHURCH IN TORONTO

카메라 바자및 무료 크리닉

(촬영 실기 지도)

바야흐로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본협회 에서는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저 다음과 같이 사진바자및크리닉을 실시하오니, 소중히 간직하신 카메라도 첵크업 하시고 필요없는 기구나 악세서리도 있으시면 물물교환이나 판매도 하실겸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및장소 : 2월27일오후2시한인회 강당
2. 바자 품목 : 각종카메라, 촬영기, 프로젝타, 렌즈, 조명기구, 암실기구, 악세서리및 사진재료
3. 크 리 닉 : 일류회사에 다년 근무한 수명의 기사가 완벽한 기구를 갖추고 카메라의 주요부분및 후래쉬등을 무료 테스트함.
4. 실기 지도 : 푸로모델을 동원 실내촬영에 대한 실기지도및 촬영.
※기타 바자물품을 가져 오실분은 30분 일찍 도착하여 진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회장 전경수(438-4435), 총무 이기성(265-9270)

주최 : 캐나다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大入試 자주바꾸지말고 補完만

全대통령지시 學園소요근절·法定授業日 지켜야

全斗煥 대통령은 12일 『入試제도와같은 교육정책은 자주변경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미비점을 보완해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李奎浩문교부장관과 관계국장7명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강조하고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만성적인 학원소요를 없애고 法定수업시간을 반드시 채우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진외국과같이 대학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대학교의 勉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구체적이며 실천가능한 계획을 세워 교사들에대한 硏修를 실시하고 각급 교직자들이 학생들로부터 인격과 학문등 모든 측면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자기발전노력을 계속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내지는 지원을 수행해 달라』고 말하고 『전문대학을 각종산업과연결되는순수한 직업학교로 육성하도록계획을 수립,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금년은 敎權확립의 해인만큼 이방면에유의해 문교시책을 펴나가도록하고 교육은 나라발전에중요한 원동력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 교육이 바로 국가발전에 연결되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幼稚교육도 시설확충보다는 우수한 교사확보에 더 중점을 두어 형식에 치우친 幼兒교육이 되지않도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학교교육의 분위기와 교육내용을 새시대 새역사창조의 물결에 맞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의 통일방안을 확고히 인식시키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한편 3大否定的심리 추방을 위해 교육적측면에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宗敎系 高校입학 별도配定

文敎部 보고 實業系 적성검사·校長추천으로

高入미달지역 考査폐지

大學敎育協議會구성 不實私立중학교 公立化

敎員양성 綜合大설립도 추진

문교부는 12일 고교평준화시책의 문젯점을 대폭보완, 기독교, 불교등 종교계학교에 비신자가 강제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선발방법을 바꾸고 평준화지역중 城南등 경쟁이 심하지않은곳에 대해서는 83학년도부터 선발고사없이 중학교성적만으로 학교배정을 하기로했다. 또 실업고교는 적성검사와 학교장추천만으로 학생을선발토록했다.

문교부는 또 학습효과를높이기위해 능력별반편성과 학습부진아에 대한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교과별 특수교육학교를 설립하는등 다각적인영재교육방안도 강구키로했다.

문교부는 이날 상오 全斗煥 대통령에게 82년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교계고교의 선발방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연합고사원서에 지원자의 종교와 자신의종교에 반하는 이교(異敎)계 학교에는 배정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이를 컴퓨터에투입, 학교배정에 반영토록 할방침이다.

문교부는 또 대학입시는현행제도의골격을 그대로두고 시행상의 문젯점만 보완하기로했으며 졸업정원제도 계속 시행해가면서 부분적으로만 보완키로했다.

문교부는 우수교원의 양성을위해 敎大및 師大와는 별도의 「교원양성종합대」의설립을 추진하고 교원자격을얻는데 국가고시제및 시보제(試補制)의 도입을 검토하고있다.

문교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키위해 대학관계자및 교육전문가로 「대학교육 협의회」(가칭)를 구성, 학적관리및 대학평가 교수교류, 납입금수준책정등 현재 문교부가 맡고있는 상당부분의기능을 이협의회에 넘겨줄계획이며 교수재임명제도를 적극 활용, 교수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불식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오는84학년까지 중학교의무교육의 기반조성을 끝낸다는 방침아래 현재의 사립초·중학교를 과감히 정비키로했다.

문교부계획에 따르면 현재 자체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립중학교만 남겨두고 그밖의 학교는 고등학교로전환시키거나 모두 公立化하기로했다.

문교부는 또 교복및 두발 자율화에 따라 학교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 학생들을 검소하고 단정한생활로 유도하고 성교육을 아울러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국민학교 주5일 수업제는 오는 새학기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실험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문교부는 또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올림픽 서울유치에 대비, 현재 제멋대로인 영문표기를 통일, 전국의 지명과 안내표지를 똑같이 쓸수있게끔 통일된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교부는 올해 각급학교의 학습환경도 대폭개선, 교실내 조명을 지금보다 밝게해주고 5백동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개선하며 책걸상 12만조를 체위에 맞게 제작, 교체할계획이다.

◇全斗煥 대통령이 李奎浩문교장관과 관계국장들로부터 소관업무에관해 보고를받았다.

民韓黨5役 개편

내주중 分委長등 後續人事단행

事務總長	柳漢烈
院內總務	林鍾基
政策議長	金鉉圭
訓鍊院長	梁在淦
黨紀委長	朴炳一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12일 黨6役중 인권옹호위원장을 제외한 黨5役을 바꾸는 대폭적인 당직개편을단행했다.

柳총재는 이날 사무총장에 柳漢烈당기위원장, 원내총무에 林鍾基의원, 정책심의회 의장에 金鉉圭정치훈련원장, 정치훈련원장에 梁在淦의원, 당기위원장에 朴炳一의원을 각각임명하는 한편 金文錫인권옹호위원장은 유임시켰다.

柳총재는 이번 당직개편을 계기로 두부총재의 업무를분담, 院內문제는 劉沃祐부총재가, 사무처의黨務는 李泰九부총재가 각각 간여케함으로써 모든 黨務와 院內대책을 總裁團과 黨職者가 사전협의하여 처리토록 했다.

民韓黨은 이번 고위黨職개편에 따라 내주중 院內부총무단, 정책심의회부의장및 10개분과위원장단, 중앙당사무처局長級등에 대한 後續人事를 할것으로 알려졌다. 柳총재는 15일 신임당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당직개편으로 물러나는 辛相佑前사무총장, 韓英洙前정책심의회의장은 당무위원직만 맡게된다고 柳총재는 밝혔다.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의 약력은 다음과같다.

◇柳漢烈총장▲忠南錦山출신·44세▲延大중퇴·美시카고 루즈벨트大卒▲美일리노이州 정부사회복지국장▲10代의원▲新民黨사무차장

◇林鍾基총무▲全南務安출신·56세▲木浦商高·서울大商大卒▲高試행정과합격▲全南문교사회국장·全北내무국장▲국회전문위원▲8·10代의원

◇金鉉圭정책심의장▲慶北軍威출신·45세▲慶北高·서울大문리대정치과卒▲新民黨정책위원▲10代의원▲新民黨부총무▲民韓黨조직위원장

◇梁在淦훈련원장▲慶南晋州출신·52세▲晋州師範·國民大정치과卒▲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기계공업진흥회이사▲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

◇朴炳一당기위원장▲全北益山출신·48세▲中央大卒▲高試사법·행정과합격▲감사원부감사관▲서울地檢城北지청검사▲변호사▲江原大강사

◇柳漢烈총장 ◇林鍾基총무 ◇金鉉圭의장 ◇梁在淦원장 ◇朴炳一위원

景氣회복 後續조처 협의

劉總理, 경제部處長官등과 朝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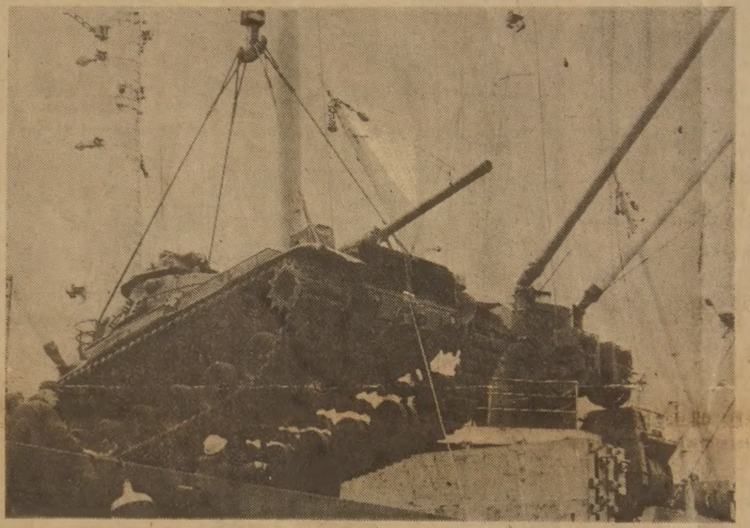
劉彰順국무총리는 12일 상오 중앙청총리공관에서 경제부처장관및 경제단체長등과 朝餐을함께하며 1·14景氣회복조치이후의 業界동향을 검토하고 경제안정을위한 後續조치등 당면한경제문제를 협의했다.

이날모임에서 劉총리는 『1·14조치이후 정부와 업계, 국민모두의 협조로 경제가점차 好轉돼가고있다』고 밝히고 『기업들이勞使문제등에더욱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

劉총리는 『全斗煥 대통령이 이미 지적한것처럼 정부당국자들은 소신을갖고 기업인들과 자주만나 경제의 현실적인문제를 이해하고 이의대책을 수립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건설경기회복을 위해 각직장단위 주택조합결성문제등에 기업들이 협조하는 방안도 논의된것으로 한참석자가전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부측에서 金埈成부총리, 羅雄培재무, 徐錫俊상공, 李宣基동자, 金宗鎬건설, 權重東노동부장관과 河永基韓銀총재와 경제계에서 鄭周永全經聯회장, 鄭壽昌商議회장, 申秉鉉貿協회장, 柳琦諍中小企協회장, 金龍周경영자총연합회장등이 참석했다.



幕오른 팀스피리트82

◇한미양국군의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82훈련이 13일부터 한반도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 훈련참가를 위해 釜山에 해상수송된 탱크, 헬리콥터등 미군장비들이 美194정비대대요원들에 의해 하역되고 있다.

B型바이러스 肝炎 인터페론으로 治療

日京都醫大 개발 1백80만단위 注射로

【東京12日=宋孝彬특파원】 곤도(近藤元治)교수가 이끄는 京都의대 제1내과교실의 곤도교수 연구팀은 3년에 걸친 연구끝에 B型바이러스 간염을 적은양의 인터페론으로 치료할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간염환자는 일본에 약3백만명이 있으며 그중에도 B型바이러스간염은 치료가 어렵고 간경화증으로 쉽게 이행되는 악성질환이다.

이들 연구팀은 6년전 미국에서 발표된 B型바이러스 간염 환자에게 인터페론이 큰치료 효과를 내고 있다는 보고에 착안, 적은양의 인터페론으로 B型간염을 치료할 수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인터페론의 B型 간염환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치료는 수백만단위~1천만단위의인터페론을 매일 투여하는치료법으로 한사람의 환자에적어도 1억단위의 인터페론이필요했었다.

이번 새방법의 개발로1억단위의 50분의1인 1백80만단위로써 치료가 가능하게된 것이다.

이방법은 간염환자의 근육에 백혈구 인터페론1백만단위를 처음 주사하고 그일주일후에는 50만단위를, 2주일후에는 20만단위를, 3주일후에는 10만단위를 주사, 모두 1백80만 단위를 투여하는것이다.

이와같은 치료법으로 60명의 B型간염환자(간경화증환자8명포함)에게 치료한결과 간기능상태를 표시하는 GOT, GPT 등의 수치가 정상으로 되돌아왔으며 약80%가 간기능이 회복되었다.

또 B型간염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바이러스존재를 표시하는 항원치가 줄어든 환자가 33%나 되었으며, 특히 감염력이강한 E항원을가진 18명중 10명에서 E항원이 없어졌다.

곤도교수는 『이렇게 적은양으로 간염치료에 큰성과를 얻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연구성공소감을 밝혔다.

3黨 黨職者모임

民正 주선움직임

權正達 民正黨 사무총장은 12일 제110회 임시국회가 소집될때를 전후하여 民正 民韓 국민등 3개정당의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만한 국회운영과 정당간의 대화를 위해 3黨의 당직자 모임은 필요하다』면서 『초청대상자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등 黨3役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3黨 3役모임에서는 양당의 후원회구성및 정치자금풀制운영문제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社會漫評

하나！둘！자꾸만…

地平線

지구의 생물은 아득한 우주의 저편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20년전 한 미국의 수학자가 주장했었다. 생물은이란 원래 우주비행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비슷한 주장을 하고있는 사람이 올해 66세인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호일 전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다. 그에 의하면 사람이 진흙에서 나온 원시생물에서 진화돼 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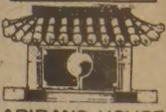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약 20만개나 되는 아미노산의 사슬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하고있다. 이 아미노산의 사슬은 신비할이만큼 일정한 모양으로 짜여진 것이다. 다윈이 설명하는 것처럼 우연한 돌연변이가 쌓여서 이렇게까지 될수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않는다고 그는 주장한다. 아득한 옛날 고도의 문명을 가진 생물이 남긴 흔적일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호일은 이 고등생물이 어떤 환경의 변화로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자 자구책으로 씨를 보냈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진화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창조론도 아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우주저편에서 왔을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다. 근본적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것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단순히 장소를 옮겼을뿐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국사찾기논쟁만큼이나 떠들썩했던 미국의 「원숭이 재판」은 결국 진화론의 승리로 기울고있다. 지난1월5알 「공립학교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야된다」는 아칸소주법이 헌법위반이라는 연방법원판결을 받았기때문이다. 오버톤판사는 38페이지나 되는 판결문에서 『창조론은 순전한 성서의 창세기부분에서 나온 종교교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칸소주당국이 재판에서 지자 루이지애나당국도 창조론교육포기를 선언했다. 문제의 아칸소주는 2월4일 항소포기를 선언,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있는16개주의 움직임에 결정적인타격을 주고있다. 이것은 우연히도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즈·다윈이 죽은지 꼭 1백년째의 해에 일어난일이다. 다윈은 1백년전 4월19일 일흔세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던 것이다.

▼『과학사상 위대한 이론치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발전된것은 없다』고 말한 과학사학자가 있었다. 위대한 과학적발전은 위대한 창조정신에서 나왔다는 말인것같다. 「종의 기원」이 다윈의 5년에 걸친 탐사여행끝에 나온건 사실이지만, 결국 그의 위대한 창조정신의 산물이다. 영국에서 벌어지고있는 세미나·전시회·우표발행등 기념행사를보면서 이 위대한 영국인의 창조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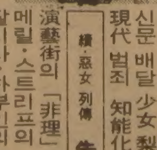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종 교 서 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 주간여성 ♡
인기절찬 판매중！
2월14일자
주간女性



入試준비로 高3작전 철저 合格했죠
—名門大 입학한 날 雙童 3쌍의 異色 애환
首席 합격 李貞賢양의 「꿈」
신문 배달 少女 梨大에 골인
現代범죄 知能化와 문젯점
橫·惡女 列傳 朱姬
演藝街의 「非理」 파동 內幕
메릴·스트리프의 매력 分析
잘리라·朴부인의 한국 讚歎
떠장사동해 모은 25억원 貧者에 바친 할머니
두 여보둔 26살 女人, 70代 노인 여보 殺害
〈탤런트 李起仙〉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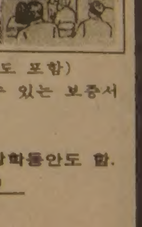
◎특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5,500 아스킹: $18,950 매 트: 년 $120,000
렌 트: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용선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2,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샾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25시간의 실내강의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인캄택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3번의 운전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한번의 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英 醫學界서 規制조치 움직임

"試驗管아기 量産은 人類장래 危險초래"

현재24명…올해중 1백명 더 태어나

살아있는아기實驗대상우려 卵子분리로複製人間도可能

【런던11日路透=聯合】세계최초로 시험관아기를 탄생시켰던 영국의학계는 이새로운 기술이 인류의 장래에 커다란위험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규제조치를 모색하고있다.

영국의학협회윤리위원장 마이클·토머스박사는 시험관아기를 위한 의료작업의 중지를 요구했으며 윤리위원회는 시험관아기에 대한 도덕적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시험관 아기와 관련한 윤리강령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험관아기가 78년7월25일 첫 아기가 탄생된이래 현재 생존중인 24명의 시험관아기가 이며 금년중으로 최고1백명의 시험관아기가 더태어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험관아기 생산기술은 일종의 굴절섬망원경인 라파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여성의 난소로부터 난자를 추출, 이를 정자와 결합시켜 배양한후 다시 여성의 자궁에 주입시키는 것이다.

시험관아기 생산기술의 선구자인 영국의 부인과의사 패트릭 스텝토박사와로버트·에드워즈박사는 한발더 나아가 불임부모를 위한 냉동난자와 태아를보존하는 은행을 설립할 계획까지 세우고있다.

토머스 윤리위원장은 지금 한창붐을이루고있는 시험관아기 탄생 기술연구가 발전하면 여러개의 난자를 「수확」하여 이를 실험이나 관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것은 지극히 상식적인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아가서는 7~8주 혹은 완전히 태아가 성숙할때까지 난자배양이 허용되어 결국은 살아있는아기를 실험대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엑시티대학인구문제연구소장 로버트·스노박사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성의 단일난자를 4개로 분리, 각각번식할수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된다면 인간의 1개 난자로부터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무리를 생산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미떼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시험관아기 생산방법이 인간을 증식시키는데 사용되지않도록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영국 의학협회가 금지조치를 결정한다해도 이는 도덕상의 의미만 있을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험관아기생산 작업을 완전히 중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개발된 시험관아기 생산기술은 25%정도의 성공률밖에없으며 시술비용은 최고 3천7백달러(약2백60만원)가량든다.

◇검둥마를 떼는 인류최초의 시험관아기 루이스·브라운양. 지난 79년9월 양친과 함께 미국을 방문, 한TV쇼에나가 고무풍선과 장난감으로 재롱을 떨던 모습. 【外】

平和위한 防禦훈련에 置重

「팀스피리트82」…15만여 韓美軍참가속 73日동안

戰爭抑止力 효과…機動力 과시

한미 양국군이 7번째로 실시하는「자유진영 최대의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82 훈련이 13일 그 막을 연다.

오는 4월26일까지 73일동안 한국중·남부지역에서 펼쳐진 이훈련에 참가하는 한국육·해·공군 약10만명과 5만7천6백명의 미군이 훈련와 첫단계인 전략전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釜山港부두에 파견된 美194정비대대는 해상으로 실려온 탱크、헬기등 장비의 하역에 여념이없다.

지난 76년부터 해마다 실시돼온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국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대비▲미 육·해·공군부대의 신속한 전략이동▲한미 공군의 제공권장악▲한미 지상군에 대한 근접공중지원▲한국해역에서의 연합 해상작전▲연합상륙작전및 야외 기동훈련▲기동부대에 대한 군수지원등 한국방위를위한 협동태세의 효율성을 측정하기위한 모든 훈련이 망라되어 치러진다.

훈련을 주관하는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훈련이 양국군 15만7천6백명과 7함대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 F15및 F16전천후요격기、AWACS(조기경보통제기)등 최신장비가 대거참가함으로써 사상 최대규모가 될것이라고 밝힌바있다. 한미연합사는 이훈련에 참가하는 미군병력은 ▲육군의 캘리포니아주둔 7보병사단、하와이주둔 25보병사단병력등 공수투입될 4천9백명과 주한미2사단장병등 2만5천9백명 ▲공군은 미본토 하와이 필리핀 일본의 각기지에서 날아올 5천3백명과 주한 314사단 병력등 1만4천5백명 ▲한국부대등 해군·해병이 1만7천2백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훈련에 참가한 미군측의 장비 가운데는 덜런드(Duluth)마운트·버넌(Mount Vernon)등 호위구축함과 순양함을 거느리고웅장한 모습을 과시한 5만1천톤급의 항모 미드웨이를비롯하여 81년부터 한국에 실전배치된 미공군의 F16기와 F15전폭기、오끼나와 가데나 미공군기지의 에이왁스조기경보통제기 (한국이동여부는 미정)、B52등 폭격기의 공중급유를 위한 K135機 C130 허큘리스 수송기와 그밖에 F4機를 변형하고 특수전자장비를 장치하여 적군의 레이다 작동을 방해하는 F4G機 (애칭 돈 족제비·Wild Weasel)등이 포함되어있다.

또 미공군은 필리핀 클라크공군기지의 제26전술훈련대대를 훈련기간중 烏山으로 이동시킬 예정인데 이부대가 갖고있는 F5E機들은 소련의 MIG21機처럼 위장하여 적기의 역할을 하게될예정。

미군당국에 의하면 미공군은「지난 월남전동안 미그機와의 공중전에서 격추당한조종사들은 출격경험이 8~10회이하인 경우가 가장많았다」는 분석에 따라 조종사의 출격 (적기와의만남)경험을 쌓기위해▲比클라크기지 (26전술훈련대대) ▲본토네바다주 넬리스기지▲유럽지역1곳등 3개의 적전술훈련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것이다。

이3개부대가운데 특히 넬리스기지부대는 비행기들을 미그機로 위장함은 물론、조종사들까지 소련군복장에다 모든생활을 소련군 조종사처럼하며 동료조종사들의 가상적기 노릇을 하고있다고 한다。

이번에 한국에오는 미공군 26전술훈련대대의 조종사들은 소련군복장을 입지는않았지만 기체는 미그21을 흉내내고있는점이 흥미를 자아내고있다。

그리고 이번훈련에는 미본토주둔 각공군기지와 태평양공군산하인 하와이 오끼나와 필리핀의 기지들로부터 2백70여명의 전술통신대원이 참가、한미공군의 작전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미7함대소속 잠수함이훈련에 참여할것이라고 전했는데 그숫자는 밝히지않았다。

팀 스피리트82훈련은 그첫단계인 전략전개훈련이 3월중순까지 계속、모든 해외투입부대가 한국지역에 이동을 완료한다음 3월말부터 4월초에 걸친 8일간의 야외기동훈련으로 클라이맥스를 맞게되며 4월26일까지 각부대는 전략복귀를 하도록 되어있다。

한미 연합군이 실시하는 팀 스피리트훈련은 양국군이 언제나 강조하듯이 평화를위한 방어적훈련이다。

한미 양국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라 한국이 돌발사태를 맞았을경우 대비、미국은 본토와)해외기지의육·해·공군을 신속히 한국에전개하여 한국군이들 미군과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하기위해 해마다정기적으로 이훈련을 하고있는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 존·A·위컴대장이 지난1월28일 板門店에서 열린 군사정전위 4백10차 본회의에서 자신이겸하고있는 주한 유엔군사령관의 이름으로 정전위 공산측대표단에 이 훈련 참관을 제의한것도 팀스피리트 훈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어훈련임을 명백히하고자 한것이었다。

그러나 북괴측은 이러한 제의에 대한 회답을 피하면서『팀스피리트훈련은 전쟁도발을 위한 준비』라고로략선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북괴는 작년연말 근년에 없었던 대규모의 군민합동군사훈련을 휴전선부근에서 실시하는등 선제기습남침을 위한 준비에 광분하고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이번팀스피리트82훈련이 한국의중남부지역에서 전개되며 휴전선 부근은 훈련상지역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이훈련이 북괴를 직접자극하지는않을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훈련은 북괴의 선제기습공격에 대비한 ①조기경보체제의 확립②유사시 양국지원군의 신속한 투입③효율적인 연합지휘체제의 유지④적정한 전쟁물자의 비축등을 점검、확인하게됨은 물론이다。

한미修交 1백주년이 되는 올해는 한미안보의 유대를강화하는데서는 획기적인 해가 될것같다。

레이건美 대통령은 83년도 예산교서를 통해 국방예산의 편성에서 중요시한 문제의하나가 한반도를 포함한 분쟁지역에서 전쟁이일어날때 최초의 30일이내에 필요한 미국의 전투부대와 지원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미군의기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와인버거장관의 국방보고서는 한반도관련부분에서 북괴는 60년대후반이래 군사력을 두배로 늘렸으며 군사력을 휴전선부근에 전진배치시키고있어서 예고없이 한국을 기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하면서 그러나 한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앞으로 5년간 국군현대화계획을 위한 자금조달능력을 향상시키며 90년까지 유리한 군사균형을 회복할수있다고 전망하는한편 주한미군의 전력현대화에 계속주력할 것을 밝히고있다。

이같이 韓美양국이 전통적인 우의를 더욱 돈독히하게는 올해에 갖는 팀스피리트82훈련은 그 훈련 자체가 원숙한 경지에 이르러 한반도의 전쟁억지효과를 높임은물론 韓美우호를 증진하는데도 하나의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申鉉鈺기자】

◇美제19지원사령부장병들이 팀스피리트82훈련에 투입되는 각종장비에 보급할 유류를 하역하고 있다.

하마市서 抗戰계속

시리아叛軍、「완전解放」주장

武力충돌 首都까지

"公報相、政府軍가담否認、거의 鎭壓"

【다마스커스12日UPI·AP=聯合】시리아정부군은 다마스커스 북부2백㎞의 공업도시 하마市에서 10일째 벌어지고있는 정통회교반군과의 전투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서방외교관들이 12일 말했다。시리아정부는 정부군과 반군과의 전투가 아사드 대통령 집권12년래 최악의 내전상태라는 서방보도를 부인했다。

아마드·이스칸다르 시리아 공보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하마市가 정부군에의해 완전봉쇄되었다고 밝히고 범법자들에대한 검거가 완전히끝나는대로 기자들의 현지방문이 허용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스칸다르公報相은 또 시리아軍이 하마시의 반란을봉쇄하기위해 헬리콥터를 급파했다고 밝혔으나 일부정부군이 반란「회교혁명군」에 가담했다는 보도는 부인했다。

한편 본의 정통한소식통은 시리아군간의 무력충돌이 수도 다마스커스와 알레포및라타키에 港都등에서도 발생、반군들이 알레포방송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시리아在野세력의 정보를 인용한이소식통은 또 하마시에서는 1개기갑사단과 防空사단병력중 3천내지 4천명에이르는 병력이「회교혁명군」에 가담、하페즈·아사드 시리아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정부군에 발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리아反政세력의 집합체인 회교혁명사령부는 10일 하마시가「解放」되었다고 발표했다。

◇추락한 蘇製 베트남空軍機 타이관리들이 11일 캄보디아국경부근 프라친부리省의 한 타피오카밭에 추락한 蘇聯製 베트남공군수송기를 검사하고있다。이 비행기에는 13명의 베트남군인이 타고있었는데 추락원인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보도가 나오고있다。【방콕12日AP電=聯合】

中共、모든 高位指導者들 2週째 公席에 不參

【北京12日UPI聯合=特約】중공의 모든 고위지도자들이 2주일이상 공석상에 모습을나타내지않고있으며 그들은 아마도 지방에서 모종의「주요사건」을 준비하고있는듯하다고 한 서방외교관이 말했다。

중공의 최고실력자인 黨부주석 鄧小平이 지난1월12일 이후 공석에서 모습을 감춘데이어 그밖의 정치국상무위원6명은 1월25일의 春節행사이후 종적을 감췄다。

중공의 신문들은 당주석胡耀邦이나 수상 趙紫陽및 다른 고위지도자들의 사진을싣지않고 있으며 중공을방문한 외국손님들은 부수상들이 영접했다。

鄧、곧人民集會주관

【홍콩12日AFP=聯合】최근 1개월간의 잠적끝에 北京에돌아온 중공당부주석 鄧小平은 앞으로 2주일내로 北京에서 개최될 대규모『인민집회』를 주관할것이라고 홍콩의 사우드·차이나·모닝·포스트紙가 12일 보도했다。

加 온테리오原電 가동中止

壓力管서事故…汚染은없어

【터론토11日=聯合】한국의月城郡에 건설중인 원자로와비슷한 캔두型원자로로 설비된 캐나다 온테리오州의 한원자력발전소에서 압력관 누출사고가 발생、가동이 중지됐다고 캐나다유일의 전국지 글로브·앤드·메일이 11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온테리오州의 브루스 원자력발전소에서 지난 9일 발생한 이사고에대한조사가 현재 진행중에있다고밝혔는데 브루스발전소의 원자로에설치된 4백80개의 압력관중의 일부에서 사고가발생했으나 방사능의 대기오염은 없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사고는 캔두型원자로로서는 7년간에 처음있는 일이다。캐나다는 현재 月城군에 6백메가와트급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15억달러에 상당하는 원자로 3基의 추가판매를위해 韓國정부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世界의社說

石油과잉공급둘러싼 展望

뉴욕·타임즈(美·10日字)

석유공급과잉상태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있다。현油價로는 세계석유생산능력이 수요를 능가하고있는것이다。

또한 석유생산량의 증대전망이 소비증대전망보다 강하기때문에 석유「과잉」이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것으로 기대할만한 충분한 근거도있다。

그러나 석유전문가들의 예측은 과거처럼 빗나갈수도있다。

많은 석유 전문가들이 이처럼 느긋한 전망을 내리고있는 이유는 뻔하다。

이란 혁명이래의 石油價앙등은 급격한 소비감소를 초래했다。주요 석유수출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생산을 크게 줄임으로써 소비감소에 대응할수있었다。그러나 만일 이라크와 이란이 양국전쟁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시장에 뛰어들게된다면 사우디의 시장통제능력이 상실될것이다。

이들국가의 경기가 회복될경우 사태는 달라질것이다。

특히 석유수입국들은 아직도 페르시아灣의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만일 페르시아灣이 전쟁이나 금수조치로 폐쇄될경우 주요 西方국가들에 큰영향을 미칠것이다。

따라서 석유공급과잉상태에서 석유를 매입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經濟短信

▲韓國鑑定院長에 黃慶周씨=韓國鑑定院은 12일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난 安鍾稷원장 후임에 전國稅審判所長 黃慶周씨를 선임。

▲KDI副院長에 司空壹박사=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11일 이사회를열고 司空壹연구위원을 부원장으로 선임。司空부원장은 현재 맡고있는 부총리자문관직을 겸임한다。전임金光錫부원장은 연구위원으로 KDI에 남는다。

▲롯데쇼핑、소비자상담실개설=롯데쇼핑(대표張性元)은 12일 고객들의 불편을 즉석에서 처리해주는 소비자상담실을 개설。(사진)

▲平澤공업지구건설사무소개소=건설부는 12일 平澤LNG수입기지항만사업을위한 건설사무소를 정식으로개소、현판식을 거행。

▲證券業協 12일 定總=대한증권업협회(회장白慶福)는 12일하오 제30기定期總會를 열고 82년도예산을 확정。

▲金星社、VTR가격 결정=金星社는 金星전자식 VTR(모델명 GHV 8100)의 가격을 79만7천원으로결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판한다。

外信안테나

◆教皇、阿洲선교旅行登程 12=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12일 두번째의 아프리카선교 여행길에 오른다。교황은이번여행중 나이지리아·베닌(舊名·다호메이)·가봉·赤道기니를차례로방문할 예정이다。【바티칸시티=AP】

左翼 니카라과에 佛、軍事장비提供

【파리12日AP·UPI=聯合】프랑스는 中美 니카라과좌익정부에 7천基의 地對空미사일과 1백대의 로키트발사대등 도합 1천5백80만달러어치의 비공격용 군사장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샤를·에르뉘 프랑스국방상이 11일밝혔다。

에르뉘국방상은 이날 프랑스외교담당 기자협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프랑스의 對니카라과 군비판매는 프랑스에대해 점진적으로 가까와진 국가들에 대한 선의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방식으로 프랑스는 일관성 있는 외교·국방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演藝話題

基金2백만弗 목표

○…발렌타인 祝日인 14일 美國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는 TV와 영화、무대에서 활약하는 스타 1백명이 모여「1백스타의 밤」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美배우기금 주최로 열리게된 이번대형특별쇼는 스타들이 모두무료로 출연하게되며 이기금으로 2백만달러의 모금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자리에는 펄·베일리、조지·번즈、베트·데이비스등원로 연예인들을비롯、3시간반동안 진행되는데 5천8백여명의 관객이 이 쇼를 지켜보고 3주일뒤에는 TV에서 녹화방영하게 된다。이 광경은 해외여러나라에서도 방영될예정。【外紙】

그리운 고국은
KAL 기
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만이 통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만이 가지는 우리의 예절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는
우리들의 대한항공…

고풍 가득한 십장생 그림이 있는
B 747 점보기의
넓고 아늑한 분위기…
우리의 가곡이 흥겹게 흐르는 스테레오
씨스템과
우리 고유의 음식 써비스…
그리고 사뿐히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 승무원들의 수줍은 미소…
그리운 고국은 KAL 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항공 TORONTO 영업소
390 BAY ST., SUITE 402•TORONTO
(416) 862-8250
(800) 268-9431 (QUEBEC)

정성껏 봉사하는 겨레의 날개
KAL 大韓航空

지정여행사
한국여행사 531-4607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試驗臺오른 親政체제

民韓黨 당직개편 의미

批判力조화 注目

力量미지수 新人많아 苦心흔적도
黨 活性化와 國民與望 실현돼야

12일 단행된 民韓黨의 당직개편은 한마디로 [illegible] 人選이아니라 안개처럼 黨職개편은 한마디로 [illegible] 黨內불만과 黨役 안정과함께 내년전당대회를 앞두고 柳致松총재의 지도체제에 대한 비판을 [illegible]

[illegible]

親政體制를 다지는데 초점을 맞춘것으로 풀이된다. 이번개편은 작년 創黨이후의 黨職임명때나 틀상적 [illegible] 동시에 收容해야했기때문에 柳총재로서는 지도力을 시험받는 계기가된셈이다. [李成俊기자]

5分間 인터뷰

民韓黨 새院內사령탑
林鍾基총무

"對정부·與관계서 갑작스런成果는禁物"
"黨內대화 衆智집약에總力"

『82명의 소속의원 모두가 결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衆智를 모으는것이 중요하지요. 따라서 이를 위해 私心없이 의원간의 대화를 넓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民韓黨의 새 院內사령탑 林鍾基총무는 그동안 黨內에서 떠돈「對話未洽」얘기를 의식한 듯「衆智」와「對話」부터 강조했다.

평소 每事에성실하고 事理에밝은 그의 목소리는 총무라는 무거운 새자리의 책임감때문인지 약간 떨리기까지했다.

—먼저 院內戰略 수립방침부터.

『院內활동은 국민의 공명감을 얻는데 중요하다고봅니다. 따라서 국민의 日常과 직결되는 문제를 계속 擧論, 처리토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對정부·여당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또 갑작스럽게 어떤 성과를 거두겠다는것은 禁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어『상대黨의 총무를 만나면 먼저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들은후 우리의 얘기를 하겠다』며『院內用兵이나 院內職人의 얘기를 하겠다』며『특히 지난해보다 금년이 選에는 여러가지원칙을 세워 黨내외적으로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갈래의 대화채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들어주지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나는 항상 오늘 이싯점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생활을 해왔읍니다. 오늘 이싯점에서 야당이 갈수있는 곳까지, 또여당을 따라잡을수 있을때까지 [illegible]』

—부총재가 院內문제에 간여하는데 대해…

『정치선배로서 효율적인 院內전략에 좋은 諮問을 해줄것으로 기대합니다. 효성이 지극하고 예의바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귀염을 받듯 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일하겠읍니다』

앞으로있을 副총무단개편문제등에 관한 그는『혹시 이林鍾基의 얘기에 煙幕이 있는것처럼 보여도 액면 그대로 보고 참아달라』고 부탁했다.

[李以春기자]

[illegible]

재로서는 적지않은 苦心을 한것같다. 그로서는 黨內不和를 해소하기위한 청탁자적인 人事權行使였기때문에, 그리고 高位階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정치스타일이어서 수가 제한된 多選에 어느정도 배치하고 압도적인 新人들의 기대와 요구에 어느정도 부응하느냐가 고민이었던 한는 것으로보인다. 특히 改編단행시기가 늦어진 것은 이같은 人事관록과능 력을 차분히 생각해야겠다는 의견들을 한국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柳총재의 人事案은 [illegible]

新民 사무차장 지낸 珍山막내

柳漢烈 사무총장

故 柳珍山 新民黨총재의 4男으로 10대때 新民黨후보로 선친의 선거구(忠南錦山·大德·燕岐)에서 출마, 政界에 데뷔했다.

10代當選이후부터 新民黨의 사무차장으로 격동기의 어려운 野黨살림을 도맡아 했고, 능통한영어로 의원外交에도 한몫. 先親이별세하기전까지 재보좌관으로 선친을 도왔기때문에 再選이지만 야당의 생리에도 정통하다. 쾌활하고 소탈한 성격.

고교시절 닦은 태권도가 4단으로 취미는 油畵그리기와 조깅. 부인 金俊淑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

計數·法에밝아 예산86억 削減

林鍾基 원내총무

행정高試에 합격, 내무부 관리와 국회전문위원을 지내 民韓黨에서는 보기드문 行政·豫算通.

지난해 국회豫決委 간사로서 86억원의 追更예산을 깎는등의 성실성이 이번발탁의 주요이유로 꼽힐만큼 每事에 敍實第1로 일하고있다. 計數와 法理論에도 밝아 黨법령정비를 위원장으로 黨策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언론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작성, 제출하는등 일욕심도 대단하다.

부인 李歆淑여사와의 사이에 3남1녀를 두고있으며 취미는 동양화감상과 독서.

直言서合찮는 執念…創黨멤버

金鉉圭 정책의장

논리적이며 판단이 빨라 是非가 분명하고 直言을서 슴지 않는 성격.

서울大를 졸업한뒤 6代때부터 출마하여 10代때금배지를 달 정도로 七顚八起의 집념도 갖고있다.

民韓黨 창당과정에서 조직분과위원장으로 宰相佑前사무총장과 함께 지역구조직책人選을 맡았던 창당産婆役의 1人이다.

정치집념때문에 비교적 늦게 결혼, 부인 白卿僖여사와의 사이에 어린 2남을 두고있다.

취미는 바둑.

新舊調和 내걸고 黨職 출마도

梁在淸 훈련원장

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現職으로 갖고있는 기업인 출신으로 보스氣質이 강하고 사람을 다루는데능하다는 衆評.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으로 출마했던 前歷이말해주듯 新人답지않게 노련한 정치역량을 보이기도한다.

지난해12월「新舊調和」를 내세워 중앙상위의장에 출마했다가 柳致松총재의 권유로 勇退하여 박수를받기도했다.

부인 咸順子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있으며 취미는 골프와 경제書籍탐독.

政策立案에 공헌하는 初選

朴炳一 黨紀위원장

初選으로 黨務위원이 됐을때도, 이번에 黨6役으로 기용되어도 黨內에 별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정도의 人品을 갖고있다.

高試兩科에 합격한 의지와 노력型으로 항상 과묵하고 온화한 미소를 잃지않으며 업무처리에는 매우 치밀한 성격.

院內에서는 날카로운 대정부질의, 黨內에서는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정책立案에 공헌하고 있는데 틈이나면 변호사일을 보는 兼職의원으로 부인 劉永周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

〈民韓黨 새黨職者얼굴〉

"統一기반 造成위해 言論등 自由보장을"

統一심포지엄서 韓培浩교수 주장

民正黨이 주최한 統一문제 심포지엄이 이틀간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12일 폐막했다.

이틀째인 12일 韓培浩교수(高麗大)는「통일主體로서의 各集團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에서『통일기반조성을 위해 우리는 북한의 一元主義를 용해해버리는 의미에서 多元的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면서『다원적가치가 추구되려면 예술인 학자 종교인 언론인등의 자유롭고 창의적인활동이 보장되어야하며 한국사회가 통일을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는데 기성을 잡기 위해서는 인간본성이 요구하는 다원적가치가 우선 우리 사회질서속에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基鐸교수(延世大)는「分斷構造와 민족통합의 諸課題」란 주제발표를 통해『南北협상을위한 5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①公·非公式기구와 채널의 구축등「힘의 共存」단계 ②不可侵또는 평화조약체결과 南北頒袖회담개최등 平和共存단계 ③군사적敵對요인제거와 南北韓공동시장창설등 경제적 共存단계 ④南北韓統一憲章제정등 協力的 共存단계 ⑤南北韓총선등 共存의 해소단계등을 [illegible]

또한 와따나베·아끼오(渡邊昭夫)교수(東京大)는「東아시아정치와 한반도통일」이란 주제발표에서『일본이 북한에 행사할수있는 어떠한 영향력도 한국지도자들의 완전한 이해와 사용돼야한다』면서『東아시아의 안전보장회의 설립도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庶民住宅값 公示制

民權黨서 실시건의

民權黨은 12일 정부에 대해 無住宅者 특히저소득층의 주택소유확대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펴나가도록 촉구하고 주택공사가 건축·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垈地면적, 건축단가, 公課金, 適正이윤등을 국민앞에 公示하는「住宅價公示制」를 도입토록 건의했다.

民權黨은 이날「주택공사의 국민주택공급에 대한 건의」를 통해 이같이 건의하는 한편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 가해지는 각종 제약과 세제상의 불이익을 제거할 것 ▲주택공사에서 건축하는 국민주택은 임대주택 적용토록 하여 분양가격 [illegible] 건의했다.

民正國防委간사에 金龍珠의원 內定

民正黨은 12일 국회국방위간사에 金龍珠의원(전국구)을 내정했다.

국방위간사의 교체는 金炳宇前간사가 黨정책연구소 부소장직을 맡게됨에따라 취해진것이다.

軍國主義化하는日本

閣僚들 神社참배 "天皇 만세"
野黨·總評 "帝國주의再版"비난

建國기념일

【東京12日=宋孝彬특파원】일본은 보수우경화의 물결을 타고 점차 군국주의화로 달려가고있다.

11일의 일본 건국기념식은 총리부와 文部省의 후원으로 明治神宮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성대히열렸다. 건국기념일 행사가 야스꾸니(靖國)신사의 공식참배와 함께 국가적인 행사로 발전한것이다.

戰前의 紀元節에 해당하는 건국기념일의 금년도 행사엔 다나베(田邊)총리부장관과 사꾸라우찌(櫻內)외상등 5명의각료가 참석해서 전후제일큰 규모를 기록했다. 또 내용도 일본의 開國神 진무덴노(神武天皇)에 대해 배례를하고,『천황폐하만세』까지 불러 군국주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천황폐하 만세는 천황이 참석하는 공식행사에서나 부르는것이 관례이다.

집권 自民黨의 니까이도(二階堂)간사장은 이날건국기념일이 공식 정부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illegible]

[illegible]

民韓人事에 "패를 다 써버린 바둑꼴"에 비유

政局往來

◆柳총재, 메모지없이 人選내용발표

[illegible]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우리 한인교포에게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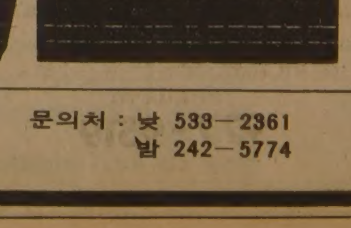
*성·프란씨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한 귀절

한국일보 광고부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社說

平和위한 힘의展開
—팀스피리트82演習과 그 眞意

오늘부터 실시되는 팀스피리트82韓美聯合大軍事演習은 새겨두어야할 여러모의 참된 가치와 뜻이 진한것임에 틀림없다. 설사 이번 작전훈련이 年例的인 것이라하여도 韓美盟邦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무엇보다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기때문이다.

팀스피리트시리즈는 이미 그 이름이 새로 붙여진이래 일곱번째를 맞는다. 美國과 공동방위관계에 있는 어떠한 다른나라에서도 이처럼 해마다 거를없이 대대적인 合同軍事演習을 지속시킨사례는 없다.

그規模는 분명히 自由世界最大의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번만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兵力은 한3천여명 줄었지만 장비의 新鋭度와 단위부대의 참가수는 월등하다. 실시기간 또한 전례없이 길어 70여일이나 된다.

특히 작년부터 계속 참가해오는 美보병제25사단과 7사단의 지휘본부 및 전투부대병력이 美國本土에서 직접 파견된다는 사실은 [illegible] 주는것 같다. 철수된 [illegible] 복귀라는 의미에서 美軍의 韓國駐留를 뚜렷이 하는 演習의 한 성격을 잘 알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80년대의 팀스피리트는 단지 軍事的인 실시목적 즉 韓國방위를위한 聯合戰略·戰術·軍事技術의 발전을 추진하려는데 그치지않는 價値의 무게를 갖고있다.

그것은 81년 韓美頂上會談을 계기로 재정립된 두나라사이의 성숙한 새同伴·굳어진 血盟관계를 실증적으로 나타내준다. 올해로써 修交1백주년을맞은 양국관계에 내일의 1백년을 더 보태가게할 발판을 보다 튼튼히하는 紐帶의 표명이라 할것이다.

10·26사태후의 진통을 극복하고 政治·經濟·社會등 모든면에서 安定을 되찾은 이땅위에 참다운「平和의 構造」를 구축코자 하는 雄志의 調和며 구현상으로 받아들여짐만 하다.

아직도 잠을 못깬채 威脅과 도발을 일삼는 北韓當局者들에게 對南赤化망상을 버리도록 채근하고 있는게 틀림없다. 全斗煥 대통령의「民族和合 民主統一방안」과 그에따른「20개示範실천사업」제의를 거부하는 따위, 비평화적 행동의 修正을 저들에게 타이르고 있다.

나아가 極東정면에 대한 소련의 팽창주의 세와 군사력증강을 경계하고 東北亞나 世界의 평화·안정을 함께 보장하는 원격전제와 대응효과를 또한 바라보게된다.

레이건 大統領을 비롯하여 와인버거 국방, 존스合參의장이 요즘 美議會에 제출한 報告내용에서 공통적으로 東北亞방위의 정책과 결의를 유달리 천명하고 韓半島유사시의 迅速대처, 美軍의 계속주둔, 韓美양군의 現代化를 강조한것은 팀스피리트82훈련 本然의 성격을 설명하고 남게한다.

요컨대 平和·安全에 대한 도전위협을 미리 배제하고 이를 막으려는 힘과 바탕을 펼쳐 전쟁위기를 가시게 하는 防衛위주의 지향점이 역력한것이다.

하기에 이번훈련은 대규모 軍事戰力의 다양하고 장기적인 展開를 시도하면서도 休戰線부근을 그 실시영역에서 제외하고있다. 北쪽 공산측에 대하여 그규모와 일자등을 사전에 알려주었다.

그뿐아니라 停戰委본회의를 통하여 공산측대표5명과 그쪽 중립국감시단원 4명이 연습현장을 참관할수 있도록 초청까지 해놓았다. 자신있는 방위력과 순수한 방어적성격을 공개하려는 뜻이다.

올해의 팀스피리트演習은 이런의미와 양상에서 확실히 획기적이다. 오직 平和·安定·安全을 희구하는 韓美두나라의 共同指標와 理念을 옮겨 반영하고 집약해 놓고있다.

부질없는 비방·중상에 앞서 平壤측도 이제 그挑戰的인 자태를 고치고 팀스피리트82훈련에서 깨닫는바 있어야할것임을 여기 충고해 둔다.

20年묵은 島嶼간첩단
—그 奸巧性, 防諜의지혜로 對應해야

한낱 武力집단에 불과한 北傀의 대남적화 야욕은 그「解氷」을 좀체 기대할수 없음이 또 드러났다.

그들의 假面劇은 통일헌법제의등 공산왕조체제 구축에 광분하고 전쟁수출상으로 變身하여 세계의 웃음거리가된것이 오늘의「北韓實像」이다. 그러면서도 북괴는 두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같은「평화의 가면」으로 위장하고있다.

우리의 뜨거운 평화통일 노력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그저의는 뻔하다. 이른바「결정적 시기」를 노린 남침의 흉계를 한층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생생한 증거가 우리손에 다시 잡혔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어제 휴전선인근에 있는 彌法島에 20년동안 잠복중이던 [illegible]

[illegible]

서울마라톤17명신청

로저스、존스등有名선수

1千5百명의 대규모大會되게 經費3억들여 準備한창

3월28일 汝矣島출발 江邊도로 거쳐 蠶室체육관·東大門·鍾路·麻浦·골인

◇빌·로저스선수

◇서울國際마라톤마크

대한 육상경기연맹은 올 3월28일 개막하는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의 공식명칭을『82서울국제 마라톤 대회겸 제53회 동아마라톤대회』로 확정,발표했다. 또한 육상경기연맹은 張翼龍회장을 대회 조직위원장으로하는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 대회를 알차게 치르기위해 박차를 가하기로했다.

12일 현재 참가 신청을 해온 외국 선수는 9개국 17명으로 이들 가운데는 2시간9분27초의 기록을 갖고있는 美國의 빌·로저스, 2시간10분41초의 휴그·존스(영국)등 2시간15분대 이내의 남자선수 14명이 끼어있다. 또 한 작년10월 뉴욕·마라톤 대회서 2시간25분28초로 여자마라톤 세계최고기록을 수립한 뉴질랜드의 앨리슨·로와 2시간30분대의 임그리드·크리스티안슨(노르웨이)、브라질의 루시네테·데·소우사등 3명의 여자선수가 엔트리를 보내왔다. 陸聯은 美國、호주、캐나다등 24개국 50명의선수에 출전 교섭을벌이고 있는데, 외국선수 엔트리마감은 이달28일까지이고 국내선수는 3월10일까지 마감한다.

서울 국제마라톤은 28일정오 여의도광장을 출발, 강변도로를거쳐 잠실대교를건너, 잠실체육관서 돌아 어린이대공원、신설동로터리、동대문、종로、마포를거쳐 여의도에 골인하게 된다.

陸聯은 3억원의 예산을투입, 1천5백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규모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선수출전자격은 15세이상이면 누구나참가할수 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張翼龍 ▲부위원장=康容植、金聖伋、金鍾錫、金昌根、薛聖洙 ▲사무총장=徐潤福 ▲사무차장=俞賢濟、趙成敏 ▲총무부장=李義遂 ▲경기심판부장=俞賢濟 ▲운영부장=李泰泰 ▲관리부장=尹一宇 ▲업무부장=吳日龍 ▲경비부장=李龍珪

◇앨리슨·로선수

日후루따選手 우승 京都마라톤

【京都(日本)11日AP=聯】일본의 후루따·마사히꼬(28)는 11일 2백83명이 참가한 제14회 교오또(京都)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17분58초로 우승했다. 폴란드의 리차르트·마르차크(36)는 2시간19분06초로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2시간21분04초를 기록한 美國의 스티브·벤슨이 차지했다.

亞洲청소년蹴球 東部지역예선전

오는 8월1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에서열리는 제23회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동부지역예선전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루네이,中共,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日本,필리핀,싱가포르,泰國,北韓등 11개팀이 출전한다고 아시아축구연맹(AFC)이 11일 대한축구협회에 알려왔다.

中共 18개종목參加 印度 아시안게임

【北京11日AP=聯】中共은오는11월19일부터 12월4일까지 印度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18개종목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관영 新華社통신이 11일보도했다.

한편 印度 국제축구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팀은 12일상오10시반 축구협회서 결단식을 갖는다.

統合新人王戰 개막

81년도 프로복싱 전국신인왕전 통합결승전이 13일과 14일 낮12시부터 문화체육관서 벌어진다.

각체급 챔피언은 오는5월 日本오사까에서 열리는 韓日신인왕대항전에 출전하는 자격을 얻게되며 최우수신인에 50만원의 격려금、우수신인 30만원、장려신인 2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市廳 배구創團

서울시청남자실업배구팀이 12일상오10시 시청회의실에서 창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남자실업배구팀으로는 5번째인 서울시청배구팀은 올해 고교를 졸업하는 李文雯(인창고)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3월 춘계연맹전에서 첫선을 보이게된다. 평균신장 1m86㎝, 평균연령 20세.

◇서울시청배구팀명단

▲단장=李相淵(부시장) ▲부장=朴順哲(내무국장) ▲코치=宋裕珍 ▲선수=申春三(한양대)、朴永澤、李度泳、金炳漢、金榮根、孫錫仁、姜信權(이상 경북사대부고)、李文雯(이상인창고)

WBA플라이級 金泰式、또 世界도전

3월14일 멕시코서 에레라에

『링의 작은巨人』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강타자 金泰式(25)이 오는 3월14일하오(한국시간) 멕시코의 메리다市에서 WBA(세계권투협회)플라이급 챔피언 후안·에레라(23·멕시코)에 도전, 타이틀매치를 벌인다고 金泰式측이 11일 밝혔다. 80년2월에 불꽃과같은 화끈한 공격으로 루이스·이바라(파나마)를 2회에 KO시키고 WBA플라이급 王座를 차지했던 金은 80년12월 로스앤젤레스서 열렸던 2차방어전서 南阿공화국의 피터·마테블라에게 판정패, 타이틀을 잃었으며 지난해8월 WBC(세계권투평의회)플라이급챔피언 안토니오·아벨라(멕시코)를 서울에 불러들여 정상 재정복을 시도했으나 2회에 KO로 침몰,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현재 WBC동급10위에 올라있는 金은 對에레라전에대비, 元振체육관 金常起회장집에 기거하면서 테크닉과 수비보강훈련을 쌓고있다.

金매니저에 의하면 金泰式-에레라 대전교섭은 지난해 12월부터 멕시코의 유력매치메이커인 라파엘·멘도사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타이틀매치가 확실히 성립되었음을알리는 전문이 멘도사씨이름으로 10일 金泰式측에 전달되었다.

金매니저는『나와 金선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에레라와의 타이틀전을 준비하고 있다. 金도 이번경기에 자신의복싱생명이 걸려있음을 누구보다잘 알고 있다. 이기고 지는것은 하늘에맡겨놓고유감없이에레라에부딪치겠다』고밝혔다.

80년12월 金이 마테블라에게 타이틀을잃은후 혼전을거듭, 불과1년사이에 3차례나 챔피언이 바뀌었다.

마테블라는 아르헨티나의 산토스·라시아르에게 王座를 내주었고 라시아르는1차방어전서 前챔피언이바라에, 이바라는에레라에게각각패했다.

켈러會長 9월來韓 五輪준비상황 視察

사마란치 IOC(국제올림픽委)위원장의 韓國방문(4월7~10일)에 뒤이어 오는 9월에는 ISF(국제경기연맹)토머스·켈러회장이 88서울올림픽 준비상황을 살펴보기위해 내한한다.

대한 올림픽위원회(KOC)에 따르면 사마란치 위원장은 아시아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기요까와(日本)부위원장그리고韓國과의전비서관등 3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韓國을 공식방문하는데 아시아지역을 北韓-中共-홍콩-필리핀-自由中國-韓國-日本순으로 순방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秘錄 現代史發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5>

軍政에서 民政으로 ⑤

軍復歸냐 民政참여냐 歷史가 엇갈린 大論爭

主體들 最高會議서 옥신각신

朴의장"不出馬"…「2·27宣誓」해프닝

宋堯讚씨、돌연 下野요구 爆彈성명

創黨작업중인 金鍾泌씨"復歸가 어떠냐"뜻모를 發言

5·16후 군사정부시절 혁명주체세력들간의「民政참여」와「軍復歸」논쟁은 憲政회복과 이땅의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빨리 소생시킬수있느냐하는 역사적 갈림길이었다.

혹날『만일 그들이 모두 軍에복귀했다면 政局은 어떻게 펼쳐졌을까』『그들의 行政참여는 5·16때부터 이미 예정했던것이다』라는얘기들은 어쩌면 부질없는 한가한 관측들인지도 모른다.

公約엔 朴의장親筆로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것이다』 혁명공약중 이6項은 軍政기간동안 在野는 두말할것도 없고 혁명주체안에서도 民政의 갈림길에서 숱한 爭論이 있었다. 民政不參論은 혁명주체의 民政참여는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어「혁명의 윤리」를 마피하는 反民主的행위라고했고 參與論은 본래의 과업을 완수하기위해 民政참여가 불가피하며 궁극적으로도 공약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했다.

문제의 이 항목은 5·16의 1段참모였던 金鍾泌씨가 작성한 혁명공약중 인쇄직전에 朴正熙의장이 직접 親筆로 추가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당시를 회상하는 혁명主體중에선『民政이양의 갈림길에서 야당이 自重하고 단합했더라면 제3공화국의 양상은 뒤바뀌었을 것』이라며『白紙한장의 차이였다』는 술회가 있는가하면『大勢는 일찌기 결정되어 있었다』는 反論이 나오기도 한다.

5·16혁명주체들이 民政참여의 의사를 굳힌 시기가 언제쯤인가에 대해선 보는 視角이 다르지만 그것이 전체적의사로 집약된 시기는 혁명1년수개월이 지난62년가을께로 볼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그것을 말해주는 例한토막。

62년 10월하순의 어느날하오。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비공식회의가 열렸다。

意中몰라 귀를 의심

회의실엔 朴正熙의장、李周一부의장을 비롯、각 분과위원들과 각군 참모총장등 최고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최고위원은 아니지만 金鍾泌중앙정보부장도 참석했다.

『각자 소신들을 말해보라』는 朴의장의 말이 있은뒤 최고위원들간에는 民政참여를 두고 조심스럽게 贊反의견이 오르내렸다.

그러던중 金鍾泌부장의 입에서『民政참여를 하지말고 原隊복귀를 함이 어떠냐』는 말이 나왔다. 대부분 위원들은 귀를 의심했다。많은 위원들이 民政참여의 적극지지자로 생각했고 그와 관련해 某種의 조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던터에 不參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게다가 金씨의 말에「金鍾泌라인」이라고하던 K、O、K위원등 몇사람이 동조하는듯한 발언을 했다。정작 民政참여에 소극적인 위원들이 金씨의 意中을 몰라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을때 상당수위원들이 民政참여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교사회위원이었던 姜尙郁씨도 그중의 하나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책임없이 되돌아선다면 5·16거사의 의의가 없어진다. 大乘的인 입장에서 혁명을 완수하려면 民政에 참여해야한다』

결국 이날회의는 군복을벗고 民政에 뛰어들어야한다는것이 多數論으로 밝혀진채 회의를 끝냈다.

혁명주체내부에서의 民政참여 문제는 대체로 5·16한돌이 지날때까지는 누구하나 공식적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국민과 在野、언론들은 과연 그들이「약속대로 복귀할것인가」에 비상한관심을 기울였다.

처음엔 軍復歸論우세

최고위원을지낸 K씨의 회고。

『62년여름까지는 혁명주체들은 순수했읍니다。오직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一念으로 한강을 건넜던 만큼 대부분은 당연히 부정부패등 舊惡과 혼란을 일소、수습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넘겨준뒤 홀연히 軍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다만 그안에 가까운 최고위원들끼리 어울리는 식사자리에서는 각자의 去就문제를 얘기했지만 그래도 복귀論이 우세했지요。물론 모두가 혁명의 지도자인 朴의장의 결정대로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했지요。그러나 62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주체세력일부에서 民政참여를 위한 布石으로 무슨 조직을 서두른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다른 위원들도 점차 분노속에 흔들렸던게 사실입니다。「약속을 지키란」는 야당측의 거센 공세도 의식 안할수 없었고…』

金鍾泌씨측이 62년연초부터 은밀하게 추진해온 新黨 조직움직임이 62년6월 金在春씨가 지휘하는 방첩부대정보망에 적발, 최고위원들간에 알려지자 동요가 일어났던 것이다。혁명주체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生死를 같이한 동지로서 행동을 통일한다는것이 以心傳心으로 여겨졌기때문에 사전조직소식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최고위원을 지낸 Y씨、P씨등은『사전조직소식을 들었을때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요。혁명동지들 모르게 일을 꾸몄다는게 더욱 괘씸했지요。그러면서도 방첩대의 적발로 무산됐을것이라고 여겼지만 최고위원들간에 은근히 서로를 다시 보려는 기운들이 돌았던게 사실』이라고 술회했다.

清潮會서 추대움직임

그해 6월초 清潮운동멤버와 在野의 일부인사들이 朴의장 대통령추대운동을 하고있다는 말이 나왔다。『朴의장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혁명과업이 완수된다…』는등의 내용의「정치구상건의」라는 것을 당시 淸潮會회원인 朴浚圭씨는 이와관련,『軍의 감시를 받는 民政보다 차라리 現軍사정부가 국민의 감시하에 책임지고 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해 在野에 파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때 朴의장의 심경은 그런대로 담담했던 것 같다。그는 한참뒤(7월) 江原道 시찰도중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거취를 어렴풋이나마 밝혔다.

『…나는 民政참여문제를 생각해 본일은 없지만 얼마동안 이미 정치에 간여했기 때문에 다시 軍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다음의 대통령은 정치를 잘 아는 정치인 중에서 나와야한다。나와같은 군인은 국가 非常時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일지는 모르나 앞으로 모든것이 정상화되고 질서가 잡힌 다음에 우리같은 사람이 政界에 나온다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 참을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朴의장은 최고위원의 去就는 각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9월들어선 혁명주체인 朴의장의 측근들이「대통령출마를 촉구하는 건의를 한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때부터 최고회의안에선 民政참여론이 서서히 대두하기 시작했다。朴의장이 民政이양을 재확인한「8·12성명」을발표한지 한달도 안되는시기였다。이처럼 가을逆風이 어다친 당시의 逆轉배경을 K씨(당시최고위원)는 이렇게 설명한다。

『봄에 民政이양스케줄의 윤곽이 나오면서부터 구정치인들과 정치망명들의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심상치 않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왔읍니다。그들의 양상을 보니 다시 그들에게정권을 맡겨놓으면 정국이 큰 혼란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읍니다。그러면서 民政참여의 소리가 높아갔지요』

이때쯤 朴의장도『많은 최고위원들로부터 대통령출마권유를 받고있는게 사실이나 아직 결심하지 않았다。최고위원중 국회의원출마자는 軍의 순수성을 위해 절대로 복귀를 허용할수없다』고 잘라말했다。최고위원을 지낸 P씨의 얘기를들어보자.

『朴의장은 혁명의지도자로서 장래문제에대해 무척苦心했어요。처음에는 순수하게 軍에 복귀하려고 했으나 혁명과업은 제대로되지않고 결국은 사회혼란도 여전하고해서 계속 民政에나서 일을 마무리지어야겠다는 결심으로 기울어진것같아요。물론 야당에서는 民政참여를 위해「혹이 고기맛을 알듯 혁명공약을 위반하려한다」「虎尾難放格이다」는등의 공격에 분노와 괴로움이 있었지요。우리들 만날때면 저들이 우리의 심정을 몰라준다고 우울한 표정을 짓곤했지요』

그러나 다른 최고위원(Q씨)은『朴의장의 그같은 참여결심은 軍에 복귀할경우 정치인들의 혁명주체에대한 보복을 우려한데다 新黨의 사전조직이 계기가 됐던것같다』고 분석했다.

62년12월27일、朴正熙의장은 드디어 63년1월1일부터 정치활동재개를 허용하면서 民政이양 스케줄을 발표하면서 최고위원들은 원칙적으로 軍복을 벗고 民政에 참여하기로했다고 천명했다.

◇朴正熙의장을 비롯한 혁명주체들은「과업완성후 政權이양·軍복귀」(혁명공약 6項)약속에도불구하고 民政參與문제로 커다란 陣痛과 갈등을 겪었다。기자회견을하는 朴의장뒤에 혁명공약6項이 걸려있다.

野측선 新惡打倒외쳐

63년1월1일、정치활동재개와함께 與와 野는 즐날을 세우기 시작했다。야당인들은 저마다 옛파벌과 계보를 찾아 요란스레 뛰어다녔다。얼마안돼 여러갈래로 나타난 야당은 朴의장의 출마와 조기선거반대、선거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舊惡」과「新惡타도」를 외치는 소리도 나왔다。야당에게는 恨맺힌 민정이양이었는지 모르지만 軍政의 눈에는 그전 야당이「그렇게 간청해 요구하던」참신한 야당도 自省하는 정치인도아니었다。아이로니컬하게도 혁명정부에 가장먼저、그리고가장큰 상처를 입힌것은 軍政세력내부에서였다。新黨사전조직·獨走등으로 주체들간의갈등과 反目이 노출된것이다.

그 1월에는 전내각수반 宋堯讚씨가 1월7일 朴의장의 下野를 요구하는 폭탄성명을 내 朝野를 놀라게 했다。이어 10일뒤엔 前최고위원 柳原植씨(예비역준장)가『金鍾泌씨가 조직하고 있는 정당은 그의 추종자들이 모인 派黨에 불과하다』며 반대노선을 선언하고 나섰다.

1월21일엔 共和黨발기위원인 金東河예비역중장이 金鍾泌플랜(事前조직)에 反旗를 들고 공직사퇴성명을 냈다。金씨의 사퇴는 최고회의와 정식 발기한지 며칠 안된 共和黨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그렇지않아도 62년11월께부터 共和黨 사전조직을 둘러싼 親金라인과 反金라인의 갈등이 심각하던터였다。정치불안에 경제는 더욱 뒤흔들렸다。외환고갈현상、불가고에 겹쳐 식량난은 갈수록심했다。

朴의장은 한때"어디 餘生보낼 일자리라도 있어야지"

朴의장은 2월초순께 호남지방을 시찰을 다녀오더니 그때부터 民政 不出馬說이 나돌기 시작했다。정치불안에 환멸을 느낀 朴의장이 民生苦를 보고난 다음부터 不出馬결심을 굳혔을 것이란 말이 혁명주체안에서 나왔다.

朴의장은 무엇보다 同志들의 反目과 離脫을 가장 괴로와 했다는게 측근들의 傳言이다。특히 宋堯讚씨가 폭탄선언을했을때는『침상에 엎드려 울었다』는 얘기가있다。63년 2월10일께부터 1주일동안 朴의장은 최고위원과 戰友、민간인등 여러인사들을 만나 소견을 들었다。G최고위원은 고추같이 맵고 당당하던 朴의장의 태도와 표정이 그렇게 처연할수가 없더라고했다.

『原隊복귀는 못할테니 어디 여생을 보낼수있는 일자리라도 있어야지…』하더라는것。

당시 몇명의 戰友들은 朴의장에게『不出馬로 인한 동지들로부터의 원망보다 출마·집권함으로써 받을 비판이 더 크다。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幻想을 그리다가 하와이로 망명한 李承晩박사가 되지말라』고 눈물로써 忠言했다는 얘기도 있다.

最高會議「小革命」개편

2월18일。문제의 중대성명이 나왔다。이날정오『5·16혁명당시 한강을 건너오던 그 당시의 심정과 기분으로…』성명을 읽어내려가던 朴의장은 정당지도자들간의 정국수습을 위한 4개방안의 수락을 조건으로 자신의 대통령出馬、선거연기、舊정치인전면해제를 선언했다.

이 성명은 與、野간에 贊反시비를 불러일으켰다。야당쪽에선「함정」이 있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최고회의와 共和黨안에 파동이 다쳤다。성명이 나온 2월뒤엔 金鍾泌공화당창당준비위원장이 공직에서 물러났고 최고회의에선「小혁명」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그런뒤 軍·民의 악수속에 軍政이 퇴진하고 새로운 民政街道를 약속하는듯한 전기를 마련해준것이「政局수습을 위한 2·27宣誓」였다.

2월27일상오 서울시민회관에선 정당대표、정치지도자와 軍수뇌들이 한자리에 모여「盟約의 선서」를 했다.

『본인은 民政에 참여하지 않읍니다』

朴의장의 선언에 장내에선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치활동금지를 오늘부터 전면 해제할것을 선언합니다』선서로 朴의장의 손길은 떨렸고 목소리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나「3·16성명」으로 뒤집히고 다시「4·8성명」으로 번복되는 파란을 치렀으며 결국 朴의장과 혁명주체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民政에 참여、제3공화국시대를 맞았다.

【特別取材班】

당신의 운명을 말해드립니다

(손금 카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드립

●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당신께 꼭히 도움이 되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어느분이든 예외없이 충고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 한번와 보세요! 초능력적인 힘을 보실것입니다.
● 예약은 필요없읍니다.

PRIVATE AND CONFIDENTIAL READINGS

291 AUGUSTA AVE
921-0552 7일 오픈 9시~저녁9시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오타와 지국장입니다

이 태 은 : ☎ 722-6133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드립니다.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 MASA ~~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이달의 女性誌

2月의 女性誌들에는 金玉吉·金東吉박사남매의 기사가 많이 실려있는것이 눈을 끈다。公職을 떠난후 水安堡근처의 시골로 내려가 조용하게 살고있는 이들 교육자의 지혜와 助言을 각 잡지가 다투어 싣고있다。「엘레강스」는 金東吉에세이를, 「主婦生活」은金東吉박사와 人氣 MC 林蘭姬씨의 대담을, 「女性東亞」는 金玉吉총장의 화보를 각각다루고있다。각여성지들이 여전히「섹스문제」에 지나친 관심을보이고 있으며, 결혼시즌을앞두고 결혼준비에대한 각종 정보를 고루 싣고 있다。

結婚준비情報 고루실어

在美피아니스트 鄭明勳一家 소개

오는 6월에 둘째아이…5월엔 母國演奏방문

○…「엘레강스」는 美國에서 지휘자와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고있는 鄭明勳씨(28)一家를 소개하고 있다。79년 6월 5년연상인 具淳悅씨와 결혼하여 아들眞을 두고있는 그는 오는6월 두번째 아이를 갖게 된다。

지난여름 로스앤젤레스·필하머니의 부지휘자자리를 그만두고 게스트·컨덕터(객원지휘자)로서 세계의 교향악단들을 지휘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고있는 그는『오는 5월엔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필하머니를 지휘, 4년만에 고국에서 지휘봉을 잡게된다』고 기뻐한다。

피아니스트로서차이코프스키·콩쿠르에서 입상까지한경력을 갖고 있는 그는 지휘자로 전공을 바꾸게 된것은「운명」이라고 말하고『피아니스트는 혼자서 건반과 투쟁하지만, 지휘는 많은 단원들과 힘을모아 하머니를 이루어내는것이므로 인간적으로 더많은것을 배우게 된다』고 지휘자로서의 변신을만족해한다。

8살때 미국에 건너가 매네스와 줄리어드에서 수학한 그는 미국시민권을 갖고있지만 국제무대에서「明勳」이란 한국이름을 지켜온것에 큰보람과 긍지를느끼고 있다。실내장식을전공한 아내 具씨와는 7년에걸친 연애끝에 결혼했는데『결혼한후 생활의 균형이 잡히고 안정을 얻어 계속 연주여행을해야하는 음악가로서의 생활에도 큰 도움을 얻고있다』고 밝힌다。

◇지휘자 鄭明勳씨 一家。오는 6월 두번째 아기를 갖게된다。

女記者들이 쓴 르포 記事

「비밀댄스교습소를 벗긴다」

○…「주부생활」은女記者들이 쓴 르포기사로「시내버스 안내양, 진단한숙소」와「비밀댄스교습소를 벗긴다」를 싣고 있다。영하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겨울에 하루18시간의 고된 근무를 하고있는 버스안내양에게 촛점을맞춘것은 새삼스러운 기획은아니지만 여성잡지들이 소외계층에 기울이는 따뜻한 관심을 읽을수있어 돋보이는기사다。

새벽1시 막차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곤한 몸을 찬물로 씻고 20명 30명씩 얽혀서 자는 합숙소, 몸수색은 많이 없어졌지만 각자의 入金실적도표에 항상 신경을 써야하는 고달픔, 학생인지를 확인하려다가 뺨을 맞기도하는 一 재수없는 날, 흔들리는 차속에서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루종일 하반신에 힘을 주는동안 다리가 붓고 子宮울혈이 생기고 동상이 생기는 고된 근무…。우리가 매일 이용하고있는 市民의 발인 버스가 이들 안내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것을 이 기사는 다시 확인시켜준다。

안내양들은 15일근무에 13만원, 20일근무에 17만원선으로 공장의 일반근로여성들에 비해 나은 월급을 받고는있지만 워낙 격무라 희망자가 적어 각 버스회사마다 안내양이 부족한 실정。한 버스관계자는『콩나물 시루같은 버스에서 안내양의 서비스를 바란다는것은 무리이며 앞으로 지하철이 생겨 부담이 덜어지면 이들도 서비스위주의 진정한 안내양이 될수있을 것』이라고말한다。

흥미위주가 아닌 따뜻한시각으로 역경속에 살고있는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것은 여성독자들의 삶에 진정한 감동과 깊이를 줄수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방에서 20~30명씩 잠자는 버스 안내양 합숙소。

◇탤런트 張美姬와 어머니 崔淑姬씨。

張美姬"이렇게 태어났다"

「現代의 사랑」… 전면진단

○…인기탤런트 張美姬의 어머니 崔淑姬여사가 딸의出生에대해 처음으로 밝힌『내딸 張美姬는 이렇게 태어났다』가「여성中央」에실려있다。

자유당시절의 정치가 張모씨의 딸이라는 끈질긴 소문, 「기괴한 소문」등 여러가지 구설수를 겪었던 딸 張美姬의 출생과 근황을 崔여사는 자세히 밝히고 있다。

崔여사는 자신이 무학고녀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6·25를만나 釜山으로 피난갔을때 張美姬의 아버지인「사업가張씨」를만나 3남매를 낳게되었다고 고백한다。유부남인줄 모르고 바람기있는 남자와 속아살다가 결국 헤어지게 된 이야기, 혼자서미장원·양품점·다방등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딸을 키운 이야기들을 세세히 털어놓았다。그는『양육비란곤 한푼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집에서 쫓겨난 그해 동지섣달,「내 인생은 이제부터다。내 인생의 元年은美姬부터다。내 美姬를 세상이 깜짝 놀랄 인물로 키워주마」고 피나는 결심과 각오로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그리고 딸에게 쏟은 정성은 정성이 아니라, 차라리 신앙이었다』고 고백한다。이때문에 딸에게 쏟은 정성이 일부에서는「극성」으로 비판되기도 했지만『내가 걸어온 가시밭길 인생과 남모르는 恨의 응어리를 알게되면 누구나 이해해 줄수 있을것』이라고 말한다。

張美姬는 2월중에 홍콩으로 떠나 韓中合作영화에 출연할 예정이며, 그곳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崔여사는 밝히고있다。

○…「女性東亞」는「플라토닉·러브는 神話인가」특집「사랑의필수속성」인 신비함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의사랑에 대한 전면 진단을 하고있다。

물질화 되어버린 사랑, 코피자동판매기식의 인스턴트 사랑,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불투명한 사랑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풍속도에서도 시들지않는 진정한 사랑의 사례들을 모으고 있었다。

문학평론가 金宇鍾씨는「한국문학에서 본 옛날과 오늘의 사랑」이란 글을통해 春園의 소설「사랑」에서 趙海一의 소설「겨울여자」에 이르는 사랑의 변모를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그는 결론으로『사랑에 대한 도덕적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것으로 절대진리가 될수없으나, 참된 정신의 교섭없이 행해지는 사랑은 육체의 유희에 지나지않으며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사랑에만 자신을 맡길때 현대인은 사랑을 버리고 영원히 슬픔과 고독속에서 방황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어젯밤 세계 제일의 미녀와 키스하는 꿈을 꾸었지"
"어쩌면 당신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보… 바로 그게 당신이었다구!" "아이, 좋아라!"
"원참, 딴여자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야!"

海外演藝화제

3월29일 施賞式

「공산주의…·황금연못…」競合치열

아카데미賞 12-10개部門 후보에

美공산주의자들의 활동과 러시아혁명을 담은 워런·비티 감독의「공산주의자들」과 헨리·폰더 주연의「황금연못 위에선」가 제54회 아카데미상의 가장 많은 부문에 수상후보로 지명됐다。

또한 헨리·폰더와 워런·비티는 버트·랭커스터(어틀랜틱 시티)、더들리·무어(아더)、그리고 폴·뉴먼(악의 부재)과 함께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聖발렌타인祝日「1百스타의 밤」

◇헨리·폰더

◇위런·비티

여우주연상에는 캐더린·헵번(황금연못…)다이앤·키튼(공산주의자들)마샤·메이슨(오직 내가 웃을때)수전·서랜든(어틀랜틱 시티)메릴·스트리프(프랑스 육군중위의 여인)등이 후보에 올라 경합을 벌이고있다。

최우수작품상 후보에는「공산주의자들」「황금연못…」「어틀랜틱 시티」「불의꽃마차」「잃어버린 성궤의추적자들」이 지명됐고 최우수 감독상에는 루이·말르(어틀랜틱 시티)휴·허드슨(불의 꽃마차)마크·리들(황금연못)스티븐·스필버그(잃어버린…)워런·비티(공산주의자들)이 수상후보에 올랐다。

「공산주의자들」은 총12개부문,「황금연못…」이 10개부문,「래그 타임」과「잃어버린…」이 각각 8개부문수상후보로지명됐다。

한편 금년도 명예오스카상에는 후보로 4번이나 지명됐으나 한번도 수상하지못한 여배우 바버러·스탠위크(76)여사에게 돌아갔다。

금년으로 54회를맞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오는3월29일 거행될 예정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5>

朴婉緖 作 金光培 畫

숨바꼭질 ㉒

『여보, 재 중매는 암만해도 당신이 나서야 할까봐』

미진이를 어깨에서 내려 무릎에 앉히고 생선가시를 발라내 주면서 수철이가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농담이 아닌 의논성스러운 말투가 되레 수지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꾹 참고 듣기만했다。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었는데도 마냥 먹힐것처럼 저녁밥이 맛있는 것도 그녀의 나쁜 기분을 더욱 참담하게 했다。

『왜요?』

『당신은 발도 넓고 친정도 번화하잖아。[illegible] 너무 나이로해도 연줄혼이 안전하거든』

『글쎄요。그야 어렵지않지만 고모가 오해할까봐』

『오해라니?』

『우리가 마치 고모가 귀찮아서 빨리 치우려고 서두는 걸 알면 어떡해요?』

『원 걱정도 팔자군。내년이면 대학졸업반이야。서둘기는커녕 너무 늑장부리고있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어。쓸데없는 소리긴 하지만 나이에 따라 여자의 값을 [illegible]이니 [illegible]이니하고 비유하는 소리만 들어도 요새 어째 남의 얘기같지 않더라』

『하긴 그래요。우리가 너무 모른척해도 무심하고 무책임하단 원망 들을걸요』

『언니 시집 참 잘못왔다。오빤 안그렇게 생각해?』

수지가 [illegible]리며 끼어들었다。

『왜?』

둘이 다 천부당 만부당하다는듯이 눈에 힘을 주고 수지를 주시했다。

『나같은 군식구 때문에。군식구란 잘 해줘도 원망 못해줘도 원망 어차피 잘해준 적은 없는 배은망덕한 친구아뉴? 군식구중에도 시누이란 군식구는 도대체 얼마나 밉살스러울까 나 만해도 진저리가 쳐지니 나도 보통 얌체가 아니지?』

수지는 밥숟갈을 멈추고 정말 한차례 진저리를 쳐보이며 말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기른 동생이라구』

수철은 무척 미진이를 거칠게 아내한테로 넘겨주며 정색을 하고 따졌다。

『오빠 섭섭해?』

수지가 돌변해서 애교를 떨며 말했다。

『내가 섭한 게 문제가 아냐? [illegible] 너한텐 남남끼리야。할 말이 있어도 못할 말이 있어。그 [illegible] 사람한테 너 가끔 너무 하는것같잖니?』

『미안해요。다신 안그럴게요。그 대신 이렇게 서러거든 나처럼 여우같은 시누이는 없는데로해줘요。부탁해요 언니』

수지는 제 하고싶은 말만 하고 그후의 분위기를 모르는체 배 불리 먹고 먼저 식탁을 물러났다。

네가 심술 좀 부렸기로서니 우리의 행복에 이상이 있을까보냐는듯이。그 후에도 밤 늦도록 네식구가 웃고 즐거워하는 소리는 계속됐다。

수지는 곧잘 수철이가 열심히 추구하고 구축한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그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즐기다가도 문득 구경꾼의 입장으로 돌변할 적이 있었다。한가족을 둘러싼 정 없이 [illegible] 구경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대단한 행복과 평화는 마치 무한한 크리스탈 접속에 넘치는 싸구려 주스만큼이나 별것같으면서 실은 별것도 아니란 걸 속속들이 투시할수가 있었다。

원가판매
"스탁에 한함"

— 삼성사 —

염가로

몽땅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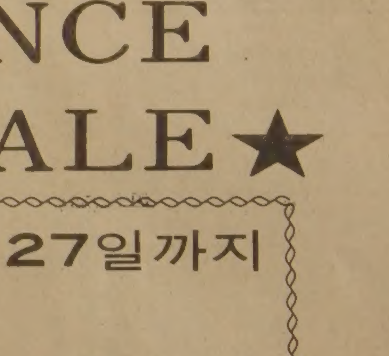
SALE SALE

★CLEARANCE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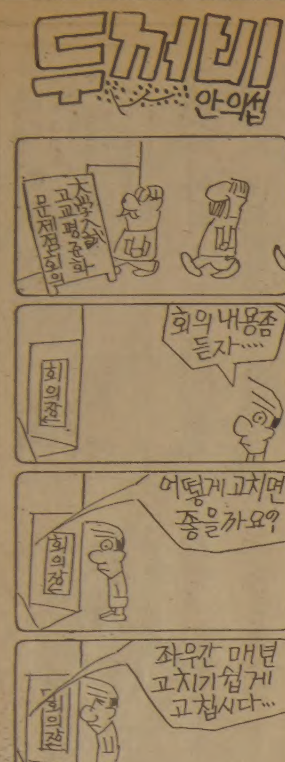
기간 : 2월18일~2월27일까지
(열흘동안)

T. V. ,전축, STEREO, 비데오
STEREO STAND
각종 전자제품등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삼성사 668 BLOOR ST. W.
533—4125(B) 964—3870(R)



농민들 營養섭취 水準미달

都·農 심한격차…食生活개선 시급

動物性 섭취량 평균値의 절반
과일·계란·우유消費量도 큰差
서울大 金解梨교수 조사

우리나라농민들의 영양섭취상태는 정부가 권장하는양에 크게 미치지못하고있으며 식품섭취량도 국민1인당 평균섭취량보다 적어 도시인과 농촌인 간의 영양실태가 심한격차를 보이고있다. 또 농민들의 동물성식품소비량은 전국민 평균소비량의 절반에도미치지 못하고있으며 과일、계란、우유등 영양식품소비 수준도 크게 뒤져 비타민A、칼슘등 주요영양소결핍상태에서 농민들을 구할수 있는 획기적인 농촌식생활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大가정대학 金解梨교수(식품영양학전공)가 발표한「農家의 食品및 營養攝取조사」란 논문에서 밝혀졌다. 金교수에 의하면 연평균 농민1인1일 영양섭취량은 정부의 권장량에 크게미달해 ▲비타민A는 8백94 IU로 권장량의 42% ▲칼슘은 57%(3백38㎎) ▲리보플래빈은 53%(1.59㎎) ▲비타민C는 53%(56.3㎎) 밖에 되지않는다.

한편 섭취음식의 전체열량(91%)과함께 철분(98%)、단백질(87%)등은 비교적 권장량과 비슷한 수준이고 지아민(1백%) 나이아신(1백42%)등은 권장량이상을 섭취하고있다.

그러나 권장량에 비슷하거나 초과섭취하고있는 영양소는 대부분 곡류와 채소에서 공급받고있는 형편으로 열량은 84%를、단백질은 76%를、지방은 55%를、지아민은 75%를 곡류에서 공급받고있으며 비타민C는 95%를 채소류에서 공급받고있다.

金교수의 논문에따르면 농민들의 식품섭취량도 1인1일 평균 9백5g으로 전국민 평균 소비량 9백78g의 92%수준밖에 못돼 도시지역과는 격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식품별로보면 쌀 3백35g、보리1백44g등 곡류 5백21g、두류9g、감자류1백16g、채소류 1백45g、과일류11g、조미료27g、생선및조개류20g、유지류3g、해조류1g、계란류1g이며 육류와 우유류는 거의없는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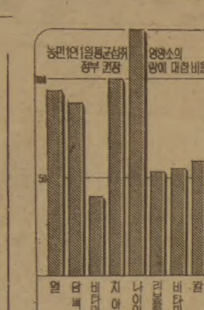
특히 농민들의 1인1일동물성식품평균섭취량은 생선류20g과 계란류1g등 21g인데 이는 도시인을 포함한 전국민 평균섭취량45g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것이다.

육류는 더욱 형편이 없어 전국민 1일평균섭취량이 5g인데 농민들은 거의없으며 채소섭취량도 전국평균 2백79g의 절반이 겨우넘는 1백45g、해조류가4g(평균5g) 생선19g(평균39g) 조미료11g(평균38g)등대부분의 식품이 전국평균소비량보다 크게 적다.

이는 전국평균이아닌 도시인평균치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현격할것이 분명하다.

농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중 곡류는 전국민평균치 5백9g보다 12g이많고 감자는 2배가량(전국평균 61g)이나많아 농촌은 곡류와 감자류등자가생산물에 식생활을 의존하고있음을 나타냈다.

金교수의 이같은 연구결론은 전국농촌 1백60개지역에서 임의추출한 2천5백15개 농가를대상으로실시한식품조사자료를분석해서얻어진것이다. 金교수는『농민들이섭취하는식품과 영양상태에 대한 생화학적·임상학적인종합연구를해 획기적인 식생활개선대책을마련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전제하면서『현재와같은 농민들의 식생활에서는 비타민A등중요한 영양소의 결핍상태를 면할수없다』고 경고했다.



3월5일께 첫公判

朴尙恩양 被殺사건、裁判部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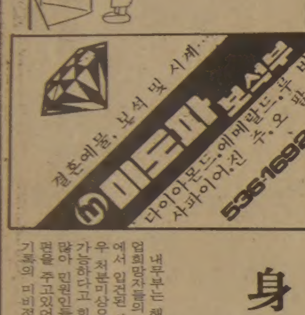
서울지검 東部지청은 12일 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鄭載巴군(21)을 살인·사체은닉및 절도혐의로 서울지법 東部지원에 기소했다.

東部지원 형사합의부(梁基俊부장판사 李鎬元·姜喜夫판사)는 빠르면 내달5일께 늦어도 내달중순에 첫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16절지 5장에 타이프로 쳐진 공소사실과 구속영장이 첨부됐는데 공소사실은 지난달25일 鄭군구속발표때와큰차이가없는내용이다.

금반지、지갑등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못한채 鄭군을 기소한 검찰은『이번 사건은 高淑鍾피고인 사건과는 성질이 다르다』면서『흠이없는 수사이기때문에 유죄판결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鄭군의 부모는『아들은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면서『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므로 변호사와 모든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身元조회기록 整備

「처분 未詳者」불편덜게

내무부는 해외여행자및 취업희망자들의 신원조회과정에서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미상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회보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어 이같은 전과기록의 미비점을 보완、신원조회기록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12일 내무부는 치안본부및 시도감식요원을 총동원、1단계로 처분결과 미상자를 각 관할 경찰서별로 뽑아내 검찰기록과 대조해 정리하고 2단계로 정리가 끝난 전과기록표를 컴퓨터에 넣어 신원조회기록을 정리하기로 했다.

약1년이 소요될 이작업이 끝나면 신원조회시 처분미상으로 통보되는 예가 줄어들어 해외여행및 취업희망자들이 경찰서나 검찰청을드나들며 사건처리결과서를 떼어오는 불편을 덜게된다.

치안본부는 이밖에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취업제한등의 불이익처분을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원조회기록등을 아울러 정리키로 했다.

◇國校신입생 예비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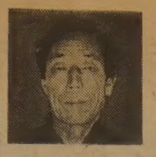
82학년도 서울시내 국민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12일 하오2시 3백19개 학교별로 실시됐다. 올해 취학어린이는 모두 17만7천3백41명(남자9만4천6백91명·여자8만2천6백50명)으로 75년3월2일부터 76년3월1일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들. 취학연령인데도 통지서를 받지못한 경우는 거주지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확인、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漁夫간첩 一家族 3명구속

安企部발표

江華 彌法島거점 20년暗躍

主犯 黃、딸까지 平壤보내 밀봉교육받아
南派간첩 길안내·은신처 제공、2명立件



◇간첩黃龍允

◇간첩韓今粉

◇간첩黃順愛

국가안전기획부는 12일 서해 휴전선근처인 경기江華郡三山面彌法島를 거점으로 20여년간 간첩으로 암약해온 일가족간첩 黃龍允(65·어부·경기金浦郡大串面大碧里64)과 黃의처 韓今粉(54) 장녀 黃順愛(36·주부·仁川市東區松峴2洞39)등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혐의로검거、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안전기획부는 또 이들과함께 검거된 黃의아들(22)과 사촌형수(59)는 불고지죄로 불구속입건하고 조카(41)와 생질(40)은 정상을 참작、훈계방면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간첩黃은 6·25때 면인민위원장으로 부역하다 월북한 4촌동생 黃龍翼(54)이 61년부터 73년까지 10차례에걸쳐 침투해 심어놓은 고정간첩으로 그동안 휴전선에서 불과4㎞떨어진 彌法島를 거점으로 북괴지령에따라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黃은 그동안 재북간첩黃이 남파 침투했을때 2차례에걸쳐 공작금(구화10만환및 현화폐35만원)을 받았으며 가족들과 함께 주민동정、군경비상황등을 수집해왔고 조카등을 포섭해서 함께월북하려다 실패했으며 침투귀환간첩을 호송안내하고 은신처를 제공해왔다.

개인별 범죄내용은 다음과 같다.

▲黃龍允=61년11월 재북간첩 黃龍翼에 의해 포섭된후 그동안 9차례나 접선、동조세력규합、해안도서에대한 군경의 경비태세 탐지、연락거점구축등의 지령을받고 조카를 포섭하려다 실패했었다.

黃은 또 지난 65년 고기잡이중 납북돼 22일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괴의 교육과지령을받고 귀환하기도 했으며 지난 61년11월 재북간첩黃이 3번째 남파、귀환할때는 장녀 黃順愛(당시16세)를 대동월북시켜 平壤에서 5일간 간첩교육을 받게 하기도했다.

▲韓今粉=61년5월 사촌시숙 黃과접선、공작금을받고 남편과함께 군경의 경비실태등을조사、보고해왔다.

▲黃順愛=61년7월 재북간첩 黃을따라 고무보트를타고 30분만에 북한 延白에 상륙、5일간 간첩교육을받은후 돌아와 서울·江華등지의 방직공장에 취직、동조자포섭등을 기도해왔다.

安企部서 당부
海岸주민 경계심 철저히

안기부는 이들의 범죄를 발표하면서 북괴는 60년대부터 해안과 도서지역에 안전거점 구축을위한 공작을 본격해왔다고 밝히고 특히해안지역주민들은 더이상 북괴의 책동에 말려들지 않도록 반공태세를 가다듬어줄것을 당부했다.

안기부는 또 그동안 3천5백명의 어부가 납북됐으며 이중 4백명이 아직도 강제억류상태라고밝히고북괴는납북어부중일부를 간첩으로양성、잠북귀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一家4명 동반自殺

신병悲觀 연탄난로 피워

【春川=聯】12일상오9시께 강원도春川市昭陽路1街78의11통5반 洪순기여인(36)의 집 안방에서 洪여인과 洪여인의 장녀 千윤정양(14·성수여중2) 2녀 미영양(11·근화국교4) 장남 인홍군(9·근화국교2)등 일가족 4명이 연탄가스에 중독、숨졌다.

이날 사고를 처음본 숨진 洪여인집 옆방의 安성자여인(38)에 따르면 아침늦게까지 인기척이 없어 안방문을열어보니 일가족4명이 연탄난로뚜껑을열어놓은채 연탄가스에중독、모두 숨져 있었다는것.

경찰은 숨진 洪여인이『남에게 더이상의 폐를끼치고싶지않아 먼저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점등으로보아 오래전부터 앓아온 신병등을비관、일가족 동반자살을 한것이아닌가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洪여인의 남편은 지난해 부인의 신병을 비관、자살했다는것.

20代 택시強盜
돈·車뺏어逃走

11일 하오7시40분께 서울 道峰區上溪2洞上溪국교앞길에서 서울4파1577호 포니택시(운전사 김성진·24)를 타고가던 20대청년 2명이 나일론끈으로 운전사 김씨의 손발을 묶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후 차를 몰고달아났다.

金씨에 의하면 범인들은 東大門區淸凉里1洞 미주아파트앞에서 택시를 불러세운후 뒷좌석에타고 上溪국교앞에 이르자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들은 돈을빼앗은후 김씨를 뒷좌석으로 옮겨놓고 차를몰고가다 이날하오 8시40분께 경기南楊州郡別內面花蝶4里 배밭에 내려놓고 달아났다는것이다.

自殺한 3靑年은 暴行치사 수배犯

【釜山=聯】속보=釜山海雲臺區靑沙浦뒷산에서 소나무에 목을매자살한 3명의 청년은 경기도龍仁경찰서에서 폭행치사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중인 洪한표(21·龍仁郡龍仁邑柳防里) 金양기(22) 신현수(23)씨등 한마을동범으로 11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사건을취급한 龍仁경찰서형사대가 洪씨와 신씨의 아버지를 대동하고 釜山에 내려와 확인함으로써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1월13일 자정께 마을에있는 무허가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좌석에 있던 모공장 신축공사장현장 감독 李인수씨(57·서울江東區石村洞97)와 시비끝에 마을앞 논두렁에서 李씨를집단구타해숨지게 했었다는것.

龍仁경찰서는 지난1월16일상오9시께 李씨의 변사체가 발견됨과 동시에 洪씨등 3명의 가출신고가 들어와 이들이 李씨를 숨지게한 공범으로 밝혀내고 전국에 지명수배했었다.

표주박

선생님은 4명 학생은 48명
大邱三育國校 단7명 卒業

○…대도시국민학교들이 과밀로 콩나물졸업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12일 大邱市壽城區中洞 三育국교는 단7명만의 졸업생을배출、이채를 띠었다.

○…이날상오11시에 거행된 三育국교 28회 졸업식에는 전교생48명과 교사·학부모등이참석했는데金용선군과 朴은정양(11)이 교육감상을 받은것을 비롯、전원이 교장상、재단이사장상등을받았다.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 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12: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3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23편)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안내광고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 파트 타임 헬퍼구함.
서쪽지역. ☎ 769-5956

가게 매니저 구함.
☎ 449-1871 Mr. 권

유경험자 스토아 헬퍼구함 :
세파드×돈·밀스
☎ : 491-9701(6시이전), 292-8838(6시이후)

가게 캐쉬어 또는 헬퍼 구함
☎ : 651-3365

"경험있는 스토아 캐쉬어 구함 : 금, 토, 일 오후 4시~11시까지, 로렌스×더프린지역)
☎ : 239-7267 MRS. 신

레스토랑 남자 헬퍼구함 :
☎ : 486-1112
프랑소와 OR MR. 정

구 직

아기 정성껏 보아 드립니다.
346 WESTON RD. (ST. CLAIR)
☎ : 763-3289 장 영 동

입주해서 아기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50세.
☎ : 438-7198

매매및 양도

다운타운—하이 볼륨 그로서리 스토아
현매상, 월 $50,000이상. 좋은 리스.
아스킹 $150,000 ☎535-0028(Mr. Kim)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이주관계로 "가와이"피아노 팔려고 합니다.
GOOD QUALITY
☎ : 425-0635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 세탁소(맞춤, 수선도함)
아스킹 $13,500
● CONVENIENCE STORE(베더스트지역)
B. HOUR ; 9 : 00AM~9 : 00PM
아스킹 ~~$19,000~~ ☎ : 763-5555 DORIS BURDA
R. CHOLKAN CO. LTD. REALTOR

그로서리도 포함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아파트 많은 지역임, 주매상 : $4,500, 아스킹 : 42,000+스탁
렌트 : $650+하이드로(월)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주소 : 550 SHEPPARD AVE. W.

버라이어티 스토아(미니·마트)팝니다
〈5개월전 개업 : 개인사정으로 급히 가게처분 하기원함〉
상점넓이 : 2000sq. ft., 스토레지룸 : 1500sq. ft.
주매상 : $3,700, 핀볼머신 수입 $250(주)
렌트 : $570(월), 리스 : 5년+5년 옵션
권리금 : $20,000+스탁, 위치 : 런던·온타리오
☎ : 1-519-473-4654(MR. KIM)

스토아 매니저 구함, 또는 가게를
팔수도 있음 몬트리올지역
(SMALL DOWN PAYMENT)
☎ : 1-514-637-6444

①그로서리(주매상 $5,000)
②써브·마린+건물($135,000)
③갤러리(영×블루어)
☎ : 481-3443(B)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Realtor.

가정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크리스티 × St. Clair)
☎ : 656-5358

이윤높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4,000 관심있는분 직접 내방바람.
250 Sheppard Ave. W.

한글타자기 구합니다.
☎ : 364-2385 MR. 김

성능좋은 2 DOOR 워킹·쿨러 팝니다.
가격 500달러
☎ : 742-4811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8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8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 C ENGINEERING INC.
☎ : (416) 624-4319
COMPLETE BUILDING DESIGN
& 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공사감독
공사견적, K. C CHUNG P. ENG
STRUCTURAL ENGINEER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6-5001(R) 전기덕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효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뜸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77 김 남 집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8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45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 : 273-7300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3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희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기 타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流星의 山賊 <308>

李炳注 作
李友範 畫

虛實의 時間 ⑥

돌아오는길 대마도에서 며칠을 묵고 그곳을떠나 고국으로 향하게된 전날밤, 부사 김성일이 수행원 일동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자리에서 성일이

『금번의 일행이 모두가모두 잘된것은 아니나 대과 없이 소임을 다할수 있었던것은 여러분의 진력한바 덕택이라고 보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고국으로 아가게 되는데 이에앞서 여러분에게 부탁할일이 있소.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필시 많은 사람들이 이것 저것 물어볼것이오. 그때 [illegible] 묻거든 이곳이나 그곳이나 별반 다름바가 없다고 답하고, 적사나 입성에 관해 묻거든, 뭐이 비록 그밖에 있었다고하나 배인과 정해하지 않았기때문에 잘모른다고 하라 대답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갑(甲)은 갑론(甲論)하고 을(乙)은 을론(乙論)하고 병(丙)은 또한 병론(丙論)할것인즉 결과적으로 우리일행이 오사잡조(雜鳥)의 무리들처럼 될것이니 각별 조심하기 바라오』

하는 말에 이어 정사 황윤길도

『우리 모두의 체신을 위해서 각자 신중을 기해야한다』

는 부탁이 있었다.

서장관(書狀官) 허성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례(事例)를 들어면 통제가 있었다. 요컨대 언어의 통일 행동의 통일을 하자는데 뜻이 있었다.

모임이 파하고난 뒤, 부사 ([illegible])의 명수(名手)고정남(高正南)이 황정남에게 귀엣말을 했다.

『우리들 걱정일랑 말고, 어른들 자신들의 걱정이나 하시라지』

하고 어젯밤 정 부사간에 밤 늦도록까지 언쟁이 있었다고 했다.

『무슨 언쟁이었소』

황정남이 물었다.

『황정사는 일본을 경계하여 [illegible] 정책을 다하도록 임금께 아뢰자고 했는데 김부사는 일본엔 아니라 민심을 혼란시킬 그런 말을 해서야 되느냐고 맞서 언쟁이 그치질 않았소』

고정남의 이말을 듣기에 앞서 자신 정부사간의 의견이 엇갈려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일 고국을 향해 떠나는 마당에서도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야 도시 말이 안되는 것이다. 통신사의 귀국으로 해서 조정에 한바탕 [illegible] 일지의 사실이었다.

고정남이 물었다.

『황정사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말이오』

『일본이 싸움을 걸어올까 어떨까 하는것에 관해 말입니다』

『글쎄 아직은…』

하다가 지남이 말을 바꾸었다.

『그런 판단은 정확히 알 밖에 낼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더우기 정부사간의 의견이 갈려 있는이 마당에선 그렇소, 고국을 말을 조심하시오』

『조심하고 말고요. 정부사간에 의견이 다르다니까 말하는 것이지만 나는 아무래도 일본이 처들어 올것만 같습니다. 사까이에서 들은 얘기에 수길은 수천만금을 들여 포도아란 서양나라에서 대선(大船)을 샀다고 합니다. 우리를 칠 저의없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써서 그런 배를 사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듣는 바에 의하면 국서(國書)에도 대명(大明)을 칠 의도를 밝히고 있다면서요』

趙名人10段戰도전권 따내

혼다9段에 不計勝, 3冠王노려

바둑소식

【東京12日=聯合】 일본프로바둑의 양대타이틀인 名人과 혼인보(本因坊)를 모두갖고있는 한국의 趙治勳기사가 12일 새벽 0시5분 [illegible] 제20기 10段戰도전권을 획득했다.

趙治勳기사는 11일 상오10시부터 東京의 일본기원회관에서 열린 도전자 결정전에서 白을 쥔 関西기원의 혼다(本田邦久) 9단을 2백5수만에 불계승으로 이겼다.

이에따라 趙기사는 오는3월3일 9시부터 東京유오따니호텔에서 오다께·히데오 10단을 상대로 5번승부 10단도전전을 벌인다.

10단전은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있지 않으나 日本프로바둑7대타이틀 가운데 하나이다.